은행이 푸드트럭 디자인을 한다구요?

IBK희망디자인 프로젝트 _ 푸드트럭

푸드트럭이 예뻐지니까 음식도 더 맛있어 보이고

손님들 칭찬에 요리할 맛도 더 난다는 사장님

IBK기업은행이 푸드트럭 디자인으로

사장님들의 희망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IBK희망디자인 프로젝트

IBK기업은행이 소상공인들의 간판과 차광막, 로고 등을 디자인하고 설치하여 골목상권의 환경을 재정비해 주는 사회공헌 사업입니다. 2016년부터 시작해 총 260여 개의 소상공인 터전과 함께했으며, 2021년 상반기에는 푸드트럭 사장님들을 지원하였습니다

IBK기업은행

MBC라디오 여성시대 2022.1 (취)문화방송

여성시대

양희은·서경석입니다

1 | 2022 January



MBC 라디오
매일 아침
09:05~11:00

행복을 찾는 사람들 1

IBK기업은행 일산장항지점 거래고객
게이트비젼㈜ 김성수 대표

행복을 찾는 사람들 2

IBK기업은행 성남하이테크기업성장지점 거래고객
㈜제이비케이랩 장봉근 대표



contents 2022년 1월호







04 **여성시대 2022 달력**

11 **이달의 편지**
'사랑의 돈가스' 외

72 **행복을 찾는 사람들 1**
게이트비젼㈜ 김성수 대표

76 **행복을 찾는 사람들 2**
㈜제이비케이랩 장봉근 대표

80 **코너 속 편지**
'하늘에서 과일이 떨어져' 외

110 **양희은의 스튜디오에서**
단출한 삶

113 **서경석의 스튜디오에서**
호랑이의 좋은 기운이
우리 모두에게 퍼지기를 바라며

IBK기업은행 협찬의 월간 여성시대는 작지만 큰 감동을 전하고자 합니다.
매월 10일 IBK기업은행에서 무료로 배포하며, 이웃과 함께 보면 감동이 2배로 늘어납니다.

여성시대

발행일 2022년 1월 10일 **발행인** ㈜문화방송 대표이사 박성제
등록번호 라 - 5413 **진행** 양희은, 서경석 **프로듀서** 박혜화, 박신유
방송 MBC라디오 매일 아침 9:05~11:00 **인터넷 주소** www.imbc.com
방송중 열린전화 02-368-1500 **문의** 02-789-3401 **주소** (03925)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267 MBC 라디오 여성시대
편집·제작 하나로애드컴(02-3443-8005) **표지 작가** Heyhoney **월간지**(비매품)

전국 주파수 안내(표준FM) ※전국 각 지역은 아래 주파수대에서 MBC 라디오 청취가 가능합니다.

서울 95.9 **부산** 95.9 / 106.5 **대구** 96.5 **광주** 93.9 **대전** 92.5 / 91.3 **전주** 101.7 / 94.3 **창원** 98.9
춘천 92.3 / 88.9 **청주** 107.1 **제주** 97.9(견월악) / 97.1(삼매봉) **울산** 97.5 **강릉** 96.3 **진주** 91.1 / 93.5 **목포** 89.1
여수 100.3 **안동** 100.1 **원주** 102.5 / 92.7 **충주** 96.1 **삼척** 101.5 / 93.1 **포항** 100.7 **울진** 102.7 **울릉도** 98.5

여성시대 2022 달력

1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이달의 할 일

1.1 새해 첫날

2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1 설날

3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이달의 할 일

3.1 삼일절

3.9 20대 대통령 선거

4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여성시대 2022 달력

5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이달의 할 일

5.5 어린이날

5.8 어버이날

6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6.1 지방선거일

6.6 현충일

7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이달의 할 일

8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8.15 광복절

여성시대 2022 달력

9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이달의 할 일

9.10 추석

10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10.3 개천절

10.9 한글날

11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이달의 할 일

12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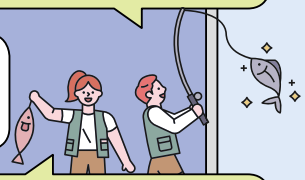
12.25 성탄절

〈우리는 이런 부자〉

김효진 우리는 '흙 부자'입니다! 도자기를 만드는 부부이다 보니 작업장엔 흙이 많아요. 오늘 하루도 도자기를 만들면서 시작합니다.

이지우 우리 부부는 '쌍가마 부자'예요. 둘 다 정수리에 쌍가마가 있어요!

김용화 우리 부부는 '사과 부자'에요. 사과 농사를 지으며 둘이서 사는데 잘못한 일 있으면 사과도 잘해요. 사과 키우기를 잘했나 봐요. 창고에 쌓인 사과 보기만 해도 부자네요.



8363 우리 부부는 '낚시 부자'예요. 서로 낚시 좋아해서 물고기도 잘 잡으러 다닙니다. 요즘 코로나라 둘이서 휴일에 다니는데 나 한 마리! 남편 한 마리! 잡고 매운탕 끓여 먹고 재미있어요. 낚시 즐겁네요.



1976 저희 부부는 '깔끔 부자'입니다. 남편이 한 깔끔해서 늘 물티슈, 휴지는 항상 집안 곳곳에 있답니다. 덕분에 저도 같이 깔끔 떨어요.

0645 저희 부부는 '발 냄새 부자'입니다. 함께 배달 일을 하는데 밤늦게 집에 들어가면 아이들과 어머니께서 '너희 둘은 씻어도 씻어도 발 냄새가 가시질 않냐?' 이러십니다. 특히 손님이 집에 오면 참 난감합니다. 우리 부부 발 냄새 부자지만 서로의 냄새를 사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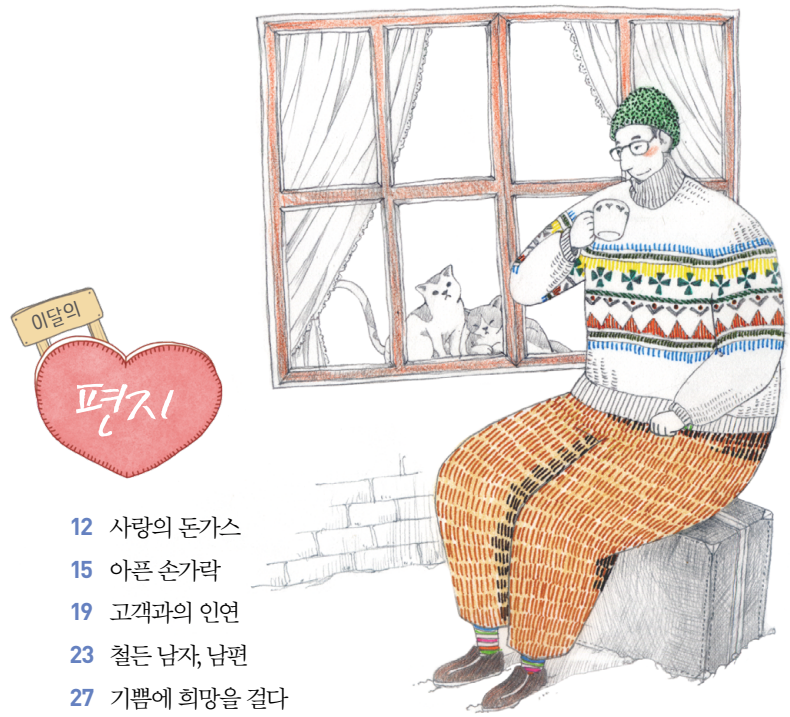
3321 전 '자식 부자'입니다. 하나도 아닌 둘도 아닌 셋도 아닌 다섯이에요. 세상 무엇도 부럽지 않아요.



4867 저희 커플은 '걱정 부자'에요. 신랑 보며 흰머리가 왜 이렇게 많은지 걱정, 40살이 거의 다 되었는데 아직도 여드름이 나는지 걱정, 신랑은 왜 아무 걱정 없이 사는지 걱정. 걱정 걱정 걱정입니다!



생방송 중 도착한 여성시대 가족들의 문자 모음입니다.



12 사랑의 돈가스
15 아픈 손가락
19 고객과의 인연
23 철든 남자, 남편
27 기쁨에 희망을 걸다
31 바디프로필 도전
35 안 울었습니다
39 청년 간병
43 벽화를 그리는 청소부
46 엄마의 복주머니
50 딸에 대하여 엄마에 대하여
53 중고 거래에서 사기 당하지 않는 방법
56 내 인생의 황혼기
59 승찬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길 바래

일러스트 | **조신애**

Letter 01

사랑의 돈가스

최순금 | 전남 순천시 해룡면

사랑의 도시락 배달 봉사를 7년쯤 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못 한 지가 벌써 2년째. 창고에 쌓여있는 줄무늬 삼단 도시락을 보며 헛헛해 하던 중 남편이 반가운 제안을 했다.

남편이 일하는 마을공동체 학교에서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돕기 위해 돈가스 도시락을 판매, 배달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가운 마음에 남편을 따라나섰다.

남편과 내가 배달할 집은 열 집이 넘었다. 돈가스 양도 100개가 넘었다. 아침 열 시부터 분주하게 만든 돈가스는 오후 3시가 되어야 포장이 완료되었고 남편 차는 순식간에 맛있는 돈가스로 가득 찼다. 앞좌석 뒤 자석 그리고 트렁크에까지 창고처럼 반찬이 쌓이고 난 겨우 앞 좌석에 엉덩이 한쪽만 붙이고 앉았다.

점심은 어묵과 김밥으로 간단하게 먹고 비타민 음료로 목을 축였다. 나 홀로 사랑의 도시락 배달은 많이 다녀 봤지만 남편과 함께하는 배달은 그날이 처음이었다.

첫 배달은 잘되었는데 이내 배달 착오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꼼꼼하고 잔소리 많은 남편은 운전기사를 했고 그 옆에서 난 보조하며 배달했는데 배달이 꼬이니 남편이 나를 어린아이 대하듯 시종일관 체크하고 잔소리가 많아졌다. 원래 서로가 성격이 달라서 속상할 때가 많은 사이다.

배달 첫 집은 젊은 부부였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메뉴가 돈가스이기 때문이겠지.

나도 학창 시절, 시내 '유생촌'이라는 경양식집에서 돈가스를 시켜먹은 적이 있다. 그땐 돈가스가 부유한 사람들만 먹는 음식이었다. 주머니에 돈이 넉넉해야 먹을 수 있는 음식, 특별한 날 가족 중 누가 졸업이나 입학식을 할 때만 먹을 수 있었던 음식이다. 포크와 나이프를 사용해서 냅킨을 두르고 지구 반대쪽 나라의 맛과 문화를 처음으로 배운 기억.

그러나 그날은 하루에 2,100개의 돈가스를 만드는 과정을 지켜봐서인지 냄새만 맡아도 배 속에서 멀미가 나는 기분이었다.

우리의 배달은 저녁 8시가 되어서야 끝이 났다. 낮에는 그럭저럭 길이 훤해서 주소를 찾는 일이 불편하지 않았는데 밤이 되고 보니 노안으로 눈도 침침하고 피곤이 몰려와서 남편의 잔소리가 더 많아졌다.

"여기 그 사람이 말한 장소 확실해? 이 동엔 7라인이 없는데!"

"이상하다. 여기 분명히 7라인이라고. 어멋! 미안, 여보. 내가 숫자를 잘못 봤다. 705호가 아니고 507호네."

"사람은 다 가끔 실수해. 그러니 매사에 철저하게 일을 해야 하는 거야. 우리 생각이 틀릴 때가 많다고."

이번엔 잔소리에 쓴소리가 섞인 설교를 꺼내 놓았다. 하지만 그날 설교는 앞으로 내가 살아가면서 들어야 할 인생 선배의 배달 지침 같기도 했다.

결혼생활 내내 나를 살뜰히 잘 챙겨주고 보살펴주며 이끌어준 고마운 남편. 그날 혼자 배달을 다니지 않아 다행이었다. 남편의 정확한 판단력이 없었다면 배달은 몇 시간이 더 걸렸을지 알 수 없다.

배달 갔던 집 중에는 한꺼번에 40개를 주문한 곳도 있었는데, 이렇게 많이 시킨 분이 누굴까 봤더니 시내에 있는 조그만 분식집 노부부 사장님들이셨다. 동네에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어 먹기 위해서 주문하셨다고 한다.

배달을 하면서 새삼 느낀 점이 상당히 많다. 봉사는 여러 사람의 수고를 통해 여러 사람이 동시에 기뻐하는 일이라는 것.

이번 돈가스 판매도 남편의 마을공동체 학교 학부모들이 한 아이의 학부모를 돕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화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아버지, 그리고 집을 나간 다문화 어머니를 둔 학생을 위해서였다. 아버지 수술비가 많이 나와서 온 마을이 힘을 모은 것이다.

사랑과 정성으로 만든 돈가스는 학교 급식실 창문을 넘어 인근 시내의 아파트와 분식점까지 잘 전달되었다.

부탁한 적 없는데도 아이들은 엄마와 아빠를 잘 도와주었다. 사랑의 돈가스는 아이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었고 그날 주변의 많은 이웃에게도 훈훈한 정으로 다가갔다. 값지고 소중한 자신의 주말을 헌납하고 남을 위해 애쓴 많은 분께 커다란 수고의 박수를 보낸다. 마음에서 진정으로 우러나지 않으면 하기 힘든 일이다.

"모두 참 많이 감사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Letter 02

아픈 손가락

한창훈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2로

소주병을 왼쪽 팔꿈치 안쪽으로 꽉 붙잡고 뚜껑을 힘겹게 돌리며 친구 놈이 덤덤히 말했다.

"제일 안타까운 게 뭔 줄 아냐? 애들 운동화 끈이 풀렸는데 매줄 수가 없더라고."

그의 억지 없는 차분한 말투에 뭔가 해야 할 것 같아 손을 내밀어 그의 팔에 들린 소주병을 가져오려 하니 "이런 건 할 수 있어. 근데 엄지가 없으니 생각보다 불편한 게 많더라고. 안전벨트도 못 매고 톨게이트에서 티켓도 왼손으로 못 뽑으니까 내려서 뽑아야 해. 아주 그지 같아. 적응이 안 돼"하며 소주병 뚜껑을 돌렸다.

일주일에 한두 번은 만나는 친구라 새로울 것도 없는 우리 대화. 술이 서너 잔 돌아도 나는 계속 멍했다. 일상이 되어버린 만남 속에서도 계속 더 크게 보이는 친구의 왼손 엄지와 검지.



8개월 전쯤 코로나19 때문에 만남이 줄었는데 오랜만에 친구한테 전화가 왔다. 그런데 전화를 받으니 친구는 대뜸 이렇게 인사했다.

"나, 좀 다쳤어!"

"이그, 술 생각났으면 그냥 한잔 사라고 해. 핑계는~"

"진짜야. 나, 진짜 다쳤어."

친구는 중장비 수리를 하는데 힘들고 거친 일이라 근육통, 타박상 그리고 가끔은 날카로운 물건에 베는 등 부상이 그 친구를 늘 따라다녔기에 설마 하면서도 걱정이 됐다.

"2주 전에 손가락 잘렸어. 엄지는 잘렸고 둘째 손가락 그건 으스러졌어."

그냥 아프다고 했으면 '한두 달 고생한다더라, 좀 쉬면 될 거야' 정도로 위로하겠지만 잘리고 으스러졌다니 일상적인 위로를 차마 입에 올릴 수 없었다. 일순간 대화가 진공 상태가 되자 당황한 나를 위해

친구가 동화책 읽어주듯 설명했다.

"장비 점검 할 때 안에 손을 넣으면 안 되거든. 100프로 잘리거든. 내가 뭐가 씌었는지 몇 년을 다룬 장비인데 어? 하는 순간 내 손이 거기 들어가 있고 아프지도 않더라고. 그래서 재빨리 빼보니까 엄지는 간신히 매달렸고 검지는 형태가 없는 거야. 119 응급차 타고 병원 가서 붙여야 하는데 환장하겠는 게 코로나라고 바로 수술이 어렵다는 거야. 한 10군데 돌았나? 겨우 수술했다. 손가락이 엄청 못생겨졌으니까 위로 차 맛난 거 사 들고 놀러나 와라."

무조건 간다고 했다. 그리고 찾아야 했다. 맛난 것을. 그러나 내 정상적인 사고로는 찾을 수 없었다. 그런 사고가 난 친구에게 '기름기 뚝뚝 떨어지는 안주를' 가져다줄 수는 없지 않는가. 결국 몸에 좋다는 전복만 넉넉히 주문해서 보냈다.

얼굴을 보러 가자 친구가 반겼다.

"손가락은 이렇게 돼도 입맛은 괜찮은 거 같아. 여기가 절단 전문 병원이어서 다들 중증이신데 니 덕분에 고맙게 잘 먹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 간호사 분들께도 좀 나눠 드리려고 했는데 부족할 거 같더라고. 그니까 나중에 피자나 몇 판 보내라. 나 좀 편하게 있게. 고맙다 친구야."

그 후 친구는 검지의 괴사 때문에 6번이나 재수술을 했다. 그중 더 안타까웠던 수술은 죽어가는 손가락을 살리기 위해 검지를 절단 후 개복한 배 속에 손가락을 넣고 피부 조직이 조금 살아나면 다시 꺼내 접합했던 두 번의 수술이었다.

남편이라서 아빠라서 버티고 참았던 친구가 결국 내뱉었다.

"아픈 건 둘째치고 이젠 병원 오는 게 지겹고, 수술해봤자인데 손가락이고 뭐고 이대로 그냥 살고 싶다. 지겨워."

"야, 그래도 노력해 보자. 여기까지 왔는데. 너 좀 더 멋지게 만들어 주시려고 하는 수술이니 쫌만 버티자!"

미숙하고 뻔한 표현이었지만 내 진심이었다.

모든 삶이 어그러진 친구의 6개월, 참고 참은 친구의 속내가 나에게 전해져왔다. 내 속도 아프고 슬펐다. 고통스러웠던 수술이 끝나고 통원 치료를 다니게 된 내 친구.

"물리치료 받는데 억지로 붙은 손가락을 꺾어서 부러뜨릴라 하더라고. 너무 아파서 진짜 가기 싫다!"

엄지손톱이 없고, 다른 손가락보다 유난히 얇고 거무튀튀하게 된 검지를 아무렇지 않게 보여주는 친구가 안쓰러우면서도 미안한 안도감이 들었다. 이만큼이나 친구가 이겨냈으니 말이다.

아버지께 받지 못한 사랑 때문에 자식들에게 유난히 끔찍한 내 친구는 회복 기간을 보낸 후 다시 현장에 복귀했다.

"괜찮냐?"

"너 같으면 괜찮겠냐? 나오고 싶어 나오겠냐고! 휴, 이제 더 조심해야지. 한순간이다. 너도 조심해!"

친구의 답변에 나도 숙연해졌다. 정상과 가까워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힘든 일상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 친구 직업이 하나 더 늘었다. 아니 '하나 더 늘렸다'가 옳지 싶다. 친구는 직업 특성상 4시면 퇴근하는데 남는 시간에 술이나 마실 것 같아 오토바이 배달을 시작했단다. 아직 성치 않은데 말이다.

"자식놈이 배우고 싶다는데 돈 없다고 못 시키면 좀 그렇잖아."

"친구야, 너는 세상 모두에게 자랑하고 싶은 내 친구다. 조만간 너 좋아하는 'Bravo My Life' 노래도 선사하고 소주도 한잔 살게. 너의 오늘이 있어서 친구야, 감사하다."

Letter 03

고객과의 인연

손현미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대동길

저는 제주도에서 오메기떡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작년 10월에 개업하여 부족하지만 열심히 떡을 만들어 잘 팔면서 주변 분들에게 맛있다, 최고라는 칭찬을 많이 받기 시작하면서 무척이나 희망에 부풀어 있었고, 정말 신나게 떡을 만들어 팔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국산 팥을 사용하여 떡을 만들다 보니 가격 경쟁력에서 조금은 버거움을 느끼며 이겨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때였습니다. 가격은 좀 비싸지만 그래도 맛과 품질은 최고라 자부하며 또한 그 가치를 찾아주시는 고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기에 더욱 힘이 나던 때였죠.

그러던 어느 날 오메기떡을 만들어 팔기 시작한 지 반년을 막 넘어서던 즈음 한 고객으로부터 문자 한 통이 날아왔습니다. 팥에서 돌이

나왔다는 사연과 함께 실물 사진까지 첨부해서요. 팥이라는 것이 밭에서 자라나는 식물이다 보니 최선을 다해서 세척하고, 이물질을 골라낸다고 애썼는데… 아뿔싸, 처음 그런 연락을 받으니 무척이나 당황스럽고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고객님이 마음이 너그러우셔서 "내가 떡이 맛있어서 참고 넘어가요. 앞니로 꽉 깨물었다가 이빨 부러지는 줄 알았습니다" 말하고, 천만다행으로 고객님이 그렇게 이해해주시고 잘 넘어가는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열흘 후, 그리고 또 일주일 후 매주 당신의 앞니가 변색이 생기는 것 같다며 시큰거리기까지 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지속적으로 보내시는 거였어요. 치료를 해드려야겠다 싶어 병원에 다녀오시고 치료비 청구를 요청드렸지만 막상 치과에 가도 별 이상이 없다고 한다며 〈나는 아픈데 병원에서는 이상 없다 하고 너무 속상해요〉 이런 내용의 문자들이 계속 날아왔습니다.

사실 어느 순간부터는 이분이 혹시 블랙 컨슈머가 아닐까 하는 의심도 하다가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용기를 내어 직접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때부터 봇물 터지듯 당신의 사연을 구구절절이 쏟아 놓는데 얼마 전 팔을 다쳐서 깁스를 하고, 집도 덕소의 외진 곳으로 이사하여 남편이 아침에 출근하고 나면 혼자 온종일 있는데 손도 마음대로 못 쓰고 이까지 불편해서 속상해 못 살겠다는 내용의 사연이셨어요. 60이 넘으신 연세에 몸도 불편하고, 온종일 참 많이 외로우셨구나 싶더라고요.

처음엔 치료비로 배상을 해드리고 마무리할까 하다가 용기를 내어 사모님께 말씀을 건넸습니다.

"사모님, 치료비 얼마 정도로 끝낼 일이 아닌 듯합니다. 저의 하루를 선물로 드릴 테니 저와 하루 데이트를 하시지요. 마침 며칠간 서울에 있을 예정이니 시간 괜찮으시면 내일 찾아뵈어도 될까요?"

그다지 믿음직스럽지 않으신 듯 정말 올 거냐 몇 번을 반문하시며 미심쩍은 뉘앙스로 통화를 끝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전화를 드리고 덕소를 향해 갔습니다. 가고 있다고 전화를 드렸더니 깜짝 놀라시며 정말 오는 거냐고 또 되묻고 내심 좋아하시는 기색이었습니다.

마침내 상봉하고 주차하면서 사모님을 태우던 과정에서 살짝 다른 차와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일단 그 접촉사고로 인해 사모님은 일차적으로 저에게 미안해하셨고 그러면서 마음속 응어리가 하나씩 풀려가는 듯 보였습니다.

사모님을 모시고 제가 향한 곳은 우이동에 유명하다는 쑥찜 치료센터였습니다. 치료비가 좀 고가이긴 하지만 정작 다치셨다는 앞니는 치료가 불가한 상태이니 다친 팔을 치료해 드리면서 마음을 어루만져 드려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세상에나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 고객 감동이 마구 폭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덕소에서 우이동까지 향하는 2시간 가량 동안 당신의 삶의 이야기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만난 우리는 8살이라는 나이 차이도 잊은 채 어느새 서로의 삶 속에 녹아들어 각자의 삶과 사는 이야기에 공감하며 오랜 세월 함께한 벗처럼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다가서게 되었습니다.

우이동에 도착해서 받게 된 쑥찜 치료로 인해 사모님은 그야말로 행복한 탄성을 연신 터뜨리게 되었고 치료를 받고 난 후에 근처 맛집에 가서 대접한 식사 한 끼에 또 한 번 감탄사를 연발하시게 되었죠.

식사 마치고 근처 카페에서 차도 한잔 대접하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외로움으로 굳어져 있던 마음이 녹아내리자 과거의 아픈 이야기까지 털어내시고 함께 울고 웃으며 우리는 그렇게 친구가 되어갔습니다.

다시 두 시간을 달려 덕소에 도착했죠. 진심을 다해 고마움의 인사를 건네주시는 사모님의 눈가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제가 집에 도착할 시간 즈음 잘 도착했느냐는 안부 전화도 주시더군요. 자칫 저희 떡을 외면하고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진 채 살아가게 될 뻔했던 고객을 완전한 단골로 모실 수 있게 되어 너무나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나, 자기네 떡 좀 팔아 보려고! 얼마에 줄 거야?"

뜻밖에 제안을 가지고 전화를 주셨습니다. 원래 오랜 세월 보험과 상조회사 영업을 하셨던 분이었기에 영업력이 좀 있으시겠다는 기대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 매일 매일 받아오시는 주문의 양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단골을 넘어서 최고의 파트너까지 되어 가시더군요. 지금도 아침마다 SNS로 귀한 말씀을 보내주시며 저를 위한 기도도 잊지 않아 주십니다.

이제는 서로 너무도 소중하게 여기는 진정한 벗이 되어가네요. 사람의 인연이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어지게 될지 모르는 것이기에 오늘 나에게 주어진 어두운 상황과 악연 앞에 주눅 들지 말고 당당하고 긍정적인 자세로 헤쳐 나가려는 용기가 참 중요하다는 깨달음을 주는 사건이었습니다.

Letter 04

철든 남자, 남편

전복순 | 전북 전주시 덕진구 거북바우길

내가 태어난 곳은 첩첩 산골 오지였다. 그곳에서 딸 다섯에 여섯째로 남동생이 태어났다. 그야말로 남동생은 황태자였다. 최고의 음식과 최고의 입을 것 그리고 공부 가르치는 것 등 다섯 누나는 오로지 남동생의 도우미 조력자로 존재했다. 심지어 셋째 누나는 남동생을 업어주어야 한다며 학교도 한 해 늦게 입학했다. 누나들은 남동생이 집안의 기둥임을 부인할 수가 없었기에 억울해도 희생과 배려를 당연시하며 살았다.

다행히 남동생은 착하고 공부도 꽤 잘하여서 고향에서 중학교를 마치고 전주로 유학을 가게 되었다. 언니는 시집을 가고 둘째인 나는 남동생의 보호자가 되어 낡은 슬레이트 지붕 아래 둥지를 틀었다. 나에게 결혼 적령기보다 중요한 건 남동생의 성공이 최우선이었기에 남동생 뒷바라지를 했다.

한 지붕 아래 고향을 등진 떠꺼머리총각이 있었다. 마당 가운데에 주인집을 비롯한 세 든 사람들 모두가 함께 쓰는 공동수도가 있었다. 쌀을 씻거나 세수할 때 그와 마주치는 일이 잦았다. 어느 날 그 총각의 누나가 내 방에 놀러 왔다. 그는 나와 동갑내기였다. 늦둥이어서 연로하신 부모님 대신 농사일을 하다 장가 갈 일이 걱정되어 객지로 나온 새내기 도시남이었다.

누나 말이 원래 머리가 좋아서 초등학교 1학년을 건너뛰고 2학년으로 월반했는데 그해 여름에 죽을 고비를 맞았다고 했다. 갑자기 쏟아진 폭우로 시뻘건 수마가 넘실대는 계곡물을 건너다가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갔다고 한다. 천만다행 물 위로 보이는 옷자락을 발견한 이웃 마을 사람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그 후유증으로 석 달간 자리에서 일어나질 못하고 일 년을 앓았다고 한다. 뒤늦게 학교에 가니 친구들은 4학년이 되었고, 뒤쳐진 진도로 학습에 대한 흥미를 잃게 되어 결석이 잦아지면서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게 되었단다.

8대 할아버지가 장군 벼슬을 할 만큼 유수한 집안이었는데 기운 가세로 뼈대만 있는 자손이었다. 그래서인지 비록 배움은 짧았지만 인격은 기품 있었다. 예의 바르고 점잖은 행동에 자꾸 눈길이 갔지만 애써 외면했다.

10월의 어느 날, 내 방 문틈 사이에 하얀 쪽지가 끼워져 있었다.

〈내장산 단풍이 아주 예쁘다는데 함께 구경 가실래요? 내일 9시에 시외버스터미널에서 기다릴게요.〉

나는 내 동생 건사하는 일 외엔 관심이 없다고 세뇌시켰다. 무관심한 척했지만 어느새 나의 발길은 버스터미널로 향하고 있었다. 갖가지 예쁜 색으로 물든 단풍을 보며 그가 나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누구 못지않게 건장한 체격으로 병역 신체검사에서 갑종을 받고도 학력 미달로 입대를 못했을 때 피눈물 났다는 절망감을 얘기했다. 그의 눈에 단풍물이 어른거렸다. 배움은 짧지만 무지하고 무식하지 않으려고 무척 노력한 그였다. 독학으로 한문과 영어는 소통하는데 지장이 없었고 셈은 나보다 훨씬 빠르고 잘했다.

나는 그의 안타까운 젊은 날의 고뇌를 어루만져 주고 싶었고 배움에 대한 한을 이해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남동생의 뒷바라지가 발목을 잡았다. 그런 나의 심정을 눈치챈 그는 우리 부모님을 찾아뵙고 남동생을 거두어주겠다고 약속했다. 가난한 신혼부부는 단칸방에서 남동생과 함께 생활했다. 남편은 가장의 역할을 너무도 훌륭하게 잘 해주었다.

생활 방편으로 건설노동자로 일한 남편은 훗날 책임감과 기술력까지 인정받아 대기업 현장 책임자로 일했다. 지금이야 주 5일제를 말하지만 IMF가 터지기 전에는 공정에 따라 일요일에도 현장에 나갈 때가 많았다. 한 달 내내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한 적이 허다했다. 그런 남편의 별칭은 '독종'이다.

밤낮없이 일한 남편의 수고로 살림살이도 토실토실 살쪄갔다. 집장만도 하고 친정 부모님께 인정도 받고 아이들도 잘 커가고 있는 행복한 시절이었다. 행복의 여신이 우리 가정에 특별히 빛을 주는 것 같은 행복도 잠시, 불행은 언제나 행복의 등에 있다고 하던가.

1997년 10월 5일 일요일 오전 9시 28분 낯선 남자의 전화였다. 내가 아내인 것을 확인한 후 남편의 사고 소식을 전했다. 병원에 도착해 보니 2층 높이에서 안전판이 무너져서 추락했는데 척추가 골절되고 복숭아뼈가 손상된 중상이었다. 의식이 또렷해서 고통을 호소하는 남편이 차라리 고마웠다. 머리를 다치지 않았으니 얼마나 다행인가.

눈물로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

그렇게 기약 없는 병원 생활이 시작되었다. 자기 관리가 철저한 남편은 대소변 도움 받는 걸 죽을 만큼 괴로워했다. 3개월이 지난 후에야 내 어깨에 의지해서 걸음마로 발맞추어 화장실 출입을 할 수 있었고, 사고 10개월 후에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티타늄이란 금속으로 골절된 척추를 지지하고, 남편의 골반 뼈를 적출해서 보조로 받쳐주는 12시간의 대수술이었다.

원래 효자이면서 책임감 강한 가장인 남편은 그날 이후 평생 금속을 몸에 지니고 살아가야 하는 철든 남자가 되었다. 그 후유증으로 남편은 또 다른 신분증을 갖게 되었다. 장애 5급 복지카드다. 남편의 키는 7cm가 줄었고 등이 굽었다. 그 굽은 등은 가장의 무게로 우리 가족을 위해서 헌신한 훈장이어서 자랑스럽지만 안쓰러운 나의 눈물이다.

떠꺼머리총각은 이제 백발의 할아버지가 되었다. 사고 당시 고1, 중2였던 아들과 딸은 대학원을 마치고 전문직으로 일하고 있으며 둘 다 결혼도 하였다.

요즘은 부쩍 사고 후유증으로 아픈 곳이 자꾸 생겨 밤잠 설치는 날이 많다. 철든 남자는 비록 아픈 몸이지만 여전히 나의 보호자다. 내 순정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해주는 남자. 살아갈수록 숨겨두었던 보석을 발견하듯 더 좋아지는 남자. 결혼은 조건이 아닌 인격의 가치가 중요하다는 나의 지론에 답을 준 남자. 당신을 선택한 최고의 판단으로 행복한 내 인생! 여보, 고맙습니다.

꽃이 피고 지고 계절의 소소함과 밥을 먹고 산책을 하고 TV를 시청하는 등 특별할 것도 없는 일상이 이토록 소중해서 아름다운 건 남편과 같은 하늘 아래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리라.

Letter 05

기쁨에 희망을 걸다

노칠환 | 울산광역시 중구 약사로

코로나19 때문에 30년 넘게 해 온 횟집을 폐업하면서 막대한 손해를 입었음에도 오히려 13년간 사용한 장소를 원상복구 해주다시피 해야 했다.

내가 돈을 벌기 위한 노동을 하지 않기로 마음먹은 지는 오래되었는데 다만 기회가 오지 않았다. 코로나 때문에 타의 반 자의 반 칼질을 던져버리자 '기회다!' 하고 돈벌이를 위한 노동은 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자 아내는 가사원에 등록해 일을 나가기 시작했다. 하루 12시간 식당 일을 하며 아내가 받아오는 돈은 9만 원. 언감생심 용돈 달라고 할 생각은 애초부터 하지 않았지만 내 주머니에 돈이 귀하디귀해졌다. 몇 달이 지나자 은근슬쩍 아내가 불평하면서 농수산물 시장에서 칼질을 하면 일당 15만 원 이상 받는다며 나에게 은근히 돈 벌어오라는 압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결혼 33주년 기념일인 11월 8일에 사건이 일어났다. 아내는 결혼기념일에 장미꽃다발 받는 것을 좋아하는데 내 호주머니에는 딱 3만 원 뿐. 장미는 한 송이만 사기로 하고 나머지 돈으로 선물을 고민하는데 노점에 진열된 예쁜 신발이 눈에 들어왔다. 망설임 없이 만 원을 주고 샀다. 아내에게 꼭 어울릴 것 같았다. 사실 우리 집 모든 자산은 내 명의이고 통장에도 돈은 있어서 장미꽃다발과 기백만 원 정도의 목걸이도 선물할 수는 있다. 하지만 그 돈은 가족의 영역이고 아내가 기대고 있는 기둥이다.

생각해보니 만 원짜리 신발과 장미 한 송이는 부족한 것 같았다. 아내가 쓰는 부러진 돋보기안경이 생각나 만 원 주고 돋보기를 사고, 부르튼 아내 입술이 떠올라 만 원에 두 개 주는 립밤도 샀다.

장미가 빠진 선물꾸러미를 들고 아내가 일하는 식당 앞에서 한 시간을 기다렸다가 선물꾸러미를 내밀자 아내가 환하게 웃었다. 우리는 손을 꼭 잡고 집에 들어가 내가 선물한 신발로 바꿔 신고 함께 삼겹살

집으로 갔다. 소주 두 병을 비웠을 때쯤 아내가 펑펑 울면서 말했다.

"아직은 당신이 돈을 벌어야 하는데 당신이 시골로만 가려 하니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집으로 오는 길에 아내가 신발 밑창이 덜렁거린다고 했다. 살펴보니 정말로 만 원짜리 신발 밑창이 덜렁거렸고, 신발 표면도 페인트칠이 벗겨진 것처럼 어느 새 벗겨져 있었다.

자연인으로 살기로 한 마음에 미안한 마음이 파도처럼 출렁여 짬짬이 봐온 진장동의 수산시장으로 아내를 데려갈 수밖에 없었다. 그곳은 1년 전부터 천 평 넘는 땅에 짓고 있는 신개념 수산시장으로 활어회와 초장집을 중심으로 한 커다란 수산식품 유통센터다.

칼을 놓은 1년 동안 내 마음이 제안했던 모든 일. 즉, 지리산 딸기농사, 양남 바닷가의 펜션 사업, 진천 백곡저수지의 커피숍, 전남 신안으로 귀농, 커피 볶는 방앗간 등의 꽃길을 거부한 아내가 수산시장에서는 망설임 없이 계약을 서둘렀다.

회 센터를 계약하는 과정에서도 아픔과 상처가 있었고, 계약했지만 은행 대출은 꽉 막혀있고, 부족한 사업자금을 충당하는 과정도 인간 시장! 아수라장! 권모술수! 관점과 입장을 내세워 거침없이 칼을 휘두르는 세상은 변함이 없었다.

배가 강물에 띄워졌다. 아내와 내가 탄 배는 수산시장이라는 배고 우리는 회 센터를 개업하기 위해 젖 먹던 힘을 다해 노를 저어야 한다. 수족관 제작을 의뢰하고, 간판을 달고, 필요한 설비와 집기를 사고…. 돈과 사람, 사람과 돈이 만들어내는 소리는 치열하고 비장하다. 11월 19일이라던 시장 오픈일은 26일로 다시 12월 3일로 미뤄졌다. 백 개 이상의 점포가 들어서는 내부시설에 시행착오가 거듭되고 수산센터에 코너를 분양받은 사람들과 시행사의 견제와 대립으로 날카롭기만

한 시간이 흐르고 있다.

우리 가게의 개업 준비도 25일이면 완성될 줄 알았는데 27일에서야 수족관이 겨우 설치되었을 뿐이다. 어제는 수족관에 며칠을 별러온 물을 채웠다. 다른 집 수족관에는 이미 물이 돌고 있고, 원래 계획대로였다면 시장에 있는 수족관 수백 개에 활어가 이미 가득해야 하는데 현장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

우리는 늦게야 시설 가동을 시험하기 위해 물을 넣은 것인데 친구네 물차에서 물을 내릴 때 생선 한 마리가 따라 나왔다. 어쩌자고 바다에 있어야 할 생선이 물차를 따라 여기 왔단 말인가? 친구는 집에 가져가서 회를 쳐서 먹든지 하라며 시범 가동하는 수족관에 생선을 넣었다. '깨돔'이었다. 그것도 귀하다고 하는 '긴 꼬리 깨돔'! 수족관 만들 때 사용한 화공약품 냄새도 마르지 않아 걱정했더니 수족관 만드는 후배가 독성이 없으니 괜찮다고 했다. 원통 수족관에 들어간 '긴 꼬리 깨돔'을 무심히 보고 있는데 시장 사람들이 감탄했다.

"와! 이곳에 처음 들어온 생선이다!"

그러고 보니 정말 이곳, 수많은 회 센터가 들어선 시장에 최초로 들어온 생선이 이 깨돔이다. 이놈 이름처럼 앞으로 함께할 '진장수산센터'에 깨가 쏟아지면 좋겠다. 더불어 숲이 되어 서로가 서로를 지켰으면 좋겠다.

A-46이 우리 코너의 번호다. 상호는 30년 이상 써온 '늘 푸른 바다'! '늘'자는 검은 색으로 변함없음을 강조했고, '푸른'은 생명의 시작을 의미하는 청색을 썼고, '바다'는 자연에 생명 다양성이 지속되기를 바라 흰색을 썼다. 이곳 '진장수산물센터'가 내가 사용한 '신영복 글씨체'가 의미하는 것처럼 함께하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늘 푸른 바다처럼!

Letter 06

바디프로필 도전

이성남 | 울산광역시 중구 함월로

내 나이 마흔다섯. 드디어 오늘 나는 운동 좀 하는 젊은 사람들이 찍는다는 바디프로필을 찍으러 간다. 그래서 어제 오후 2시부터 단수에 들어갔다. 물을 많이 먹던 나는 단수가 엄청 힘들 것 같았는데 의외로 전혀 어렵지가 않다.

원래는 바디프로필 생각은 조금도 없었다. 작년에 너무 살찐 아들을 데리고 헬스장을 찾은 게 시작이었던 것 같다. 식단 조절과 운동으로 아들이 10킬로 감량을 했고 나도 5킬로 정도 감량했다. 그러다 시간이 좀 흘러 운동을 게을리하고 식단이 무너지니 아들은 원상 복귀의 몸이 되었고 나 또한 살이 빠졌을 때 입었던 바지가 꽉 끼여서 이번엔 혼자 헬스장을 찾았다.

관장님을 찾아 PT를 받았다. 식단 조절과 더불어 운동을 하루하루 열심히 했더니 한 달 반 만에 체중은 6킬로 감량. 근육량은 23.7에서



24.4킬로로 늘어났다. 이걸 보고 관장님이 말했다.

"남들 1년 운동한 결과가 한 달 반 만에 나왔네요. 여성분들은 몸이 타고나는 것이 80프로 정도 되는데 본인이 물론 열심히 한 것도 있지만 부모님께 건강한 몸을 아주 잘 물려받으셨네요."

기분이 아주 좋았다. 이렇게 하루는 하체와 복근 중심, 또 하루는 등과 이두 삼두, 그다음은 가슴과 어깨 순으로 열심히 운동을 하다 보니 몸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관장님이 하라는 복근 스쿼트, 데드리프트, 벤치프레스를 무리 없이 중량을 다 쳐냈다. 관장님은 나를 가르치는 게 너무 뿌듯하다고 하셨다. 그러면서 내가 운동하는 모습을 폰으로 찍어 관장님 카페에 올려 회원들의 동기부여를 시키기도 했다.

어느 날은 관장님이 "팔을 쭉 뻗은 상태에서 턱걸이 해보실래요?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껏 여성분이 턱걸이 정석으로 한 번 하는 사람 딱 한 분 봤습니다" 하신다. 그날은 팔을 많이 쓴지라 어림도 없었다. 다음날 나는 턱걸이를 한 번 해보기로 맘먹고 머신에 매달려 보았다. 한 번 하는 사람 한 명 보았다고 했는데 나는 3개나 되는 것이다. "와우" 옆에 계시던 코치님이 물개박수를 쳐주셨다.

그리고 어느 날 관장님은 이런 제안을 하셨다.

"혹시 바디프로필 한번 찍어보면 어떨까요. 진지하게 생각해보세요."

집에 와서 남편에게 말하니 "해봐야지. 이때껏 근육을 만들었는데 아깝잖아. 도전하지 않는 사람은 삶의 목표가 없는 거나 똑같아. 해봐 내가 지원해 줄게" 한다.

지금까지도 식단 조절을 해왔지만 이제부터가 찐인 것 같다. 운동의 루틴도 바뀌었다. 복근과 등 근육 키우는데 집중했다. 그래서 나는 턱걸이도 6번까지 할 수 있는 체력이 되었고 팔굽혀펴기도 15회씩 3세트, 플랭크 2분씩 3세트도 빠트리지 않고 운동에 집중했다. 하루 운동량은 평균 두 시간 정도.

그런데 먹는 게 문제였다. 가족들 치킨 먹을 때 구경만 하고 출근할 땐 내 도시락을 따로 챙겨가고 사무실에서 간식 먹을 때 물만 먹어야 했다. 먹성의 꼬리를 끊어내는 게 보통 의지가 아니었다.

관장님께서 식단과 운동을 봐주시며 "딱 한 달만 고생하세요. 좋은 추억이 될 겁니다. 한 달 후에 본인의 모습을 보고 아주 기분 좋게 웃을 겁니다" 했다. 이날부터 삼시 세끼 고구마, 달걀흰자, 야채만 먹어야했다.

일주일 전 친정 제사가 있었다. 코로나19 때문에 2년 만에 친정 식구들이 모두 모였다. 오랜만에 모이는 자리라 올케는 다른 때보다 음식 준비에 더 많이 신경을 쓴 듯 맛있는 음식들이 가득했다. 나는 음식의 유혹을 뿌리치고 내가 가져간 고구마, 달걀흰자랑 야채를 먹어야 했다.

다음날 김장을 하러 시댁엘 갔다. 이실직고하고 수육도 못 먹고 저녁 마당에서의 삼겹살 파티에도 나는 배춧잎만 뜯어먹고 있어야 했다. 가져간 고구마랑 달걀흰자, 야채만 먹는 나를 보고 어머님은 안쓰럽다 못해 한소릴 하신다.

"담주 지나고 나면 실컷 무라. 담에 올 때는 살 좀 찌아서 오니라. 아이고~."

이렇게 이틀의 음식 고문이 지나갔다. 나는 잘 참았다고 스스로에게 칭찬을 해줬다.

일주일 남겨두고는 관장님이 "오늘부터는 물 벌컥벌컥 안 됩니다. 수분 최소한으로 줄입니다" 하신다. 그리고는 식단에 고구마를 빼라고 하신다. 뜨아~ 그나마 달콤한 게 고구마였는데 어쩔 수 없이 그날을 위해서 고구마를 뺀 식단으로 즉 달걀흰자에 야채만 먹은 지 6일째.

드디어 오늘, 그날이 오긴 왔다. 그 덕에 내 배에는 11자 복근을 넘어 왕자 근육이 자릴 잡았고 등에도 근육이 어느 정도 붙었다. 노력은 배신을 안 하는 법. 네 시간 뒤에는 바디프로필 의상을 입고 스튜디오에서 열심히 촬영 중일 것이다. 근육 짱짱 내 모습 바디프로필을 상상하며 나는 설레는 기분으로 촬영장으로 갈 것이다.

끝나고 나서 먹고 싶었던 음식을 먹을 예정인데 속이 탈 날까 봐 죽부터 먹을 생각이다. 그리고 못 먹었던 그리운 음식들을 먹을 것이다. 특히 우리 집 김장김치. 까오~ 생각만으로 기분이 좋아진다.

Letter 07

안 울었습니다

김용범 | 전북 남원시 산동면

저는 예쁜 아내와 두 딸을 둔 60대입니다.

농사일 하면서 여성시대를 들으며 웃고 공감하기만 하다가 제 나름대로 억울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난생처음 사연이라는 것을 쓰게 되었습니다.

작은딸이 작년 9월에 결혼했는데 결혼식 한 달 전쯤인 8월에 집에 내려와 청첩장 보낼 명단을 같이 정리하다가 제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아빠, 나 결혼식 때 축사 느낌으로 덕담 편지 하나만 써서 읽어줘. 알았지?"

작은딸은 주례 없는 형식의 결혼식을 진행하기로 했는데 저한테 주례가 없으니 덕담을 하객들 앞에서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듣자마자 고개를 강하게 저으며 안 된다고 못 박았죠.

제가 말주변도 없을뿐더러 결혼식에서 하는 덕담이라는 것이 하객들이 지루하게 느낄 수도 있고, 솔직히 제가 덕담을 딸과 사위한테 한다고 해서 그 둘이 덕담을 가슴 깊이 들을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큰딸보다 고집이 더 황소고집인 작은딸은 저의 단호한 거절에도 포기라는 법을 몰랐습니다. 어느 날은 아내에게 전화해서 저를 설득하라고 말하고, 또 어느 날은 언니인 큰딸에게 전화해서 아빠한테 잘 말해서 덕담을 하게 하라며 끊임없이 말하더군요.

작은딸은 저랑 전화하면 어김없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내 결혼식 때 덕담 편지 써서 읽어줘야 해. 알았지?"

창처럼 훅 들어오는 작은딸에게 저는 단단한 방패처럼 맞섰습니다. 작은딸에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며 다그쳤어요.

"아빠는 글도 못 써서 할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만해."

저는 제가 재차 단호하게 안 된다고 못 박으면 작은딸이 알겠다고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작은딸은 자기 친구들 결혼식 때도 친구의 아버지가 덕담 편지를 써서 읽어주는 모습이 엄청 보기 좋았다고 했죠.

황소고집인 작은딸의 끈질긴 설득에 저는 작은딸 결혼식 때 읽어줄 덕담 편지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인터넷 사이트에서 좋은 축하와 덕담이 가득한 동영상과 글을 수시로 찾아서 보고 저도 그동안 다녔던 결혼식의 주례사들을 기억해내며 노트에 조심스럽게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큰딸의 도움도 받았죠. 덕담 편지를 써 내려가는데 잘 쓰다가도 몇 번이나 지우개로 지워가며 고치기도 허다했지요.

그렇게 수없이 고쳐 쓰니 작은딸의 결혼식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정할 부분이 있는지 결혼식 당일 새벽에 보는데 갑

자기 눈물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실에 앉아 음소거 버튼을 눌러 화면 불빛만 나오는 TV 앞, 혼자 거실 테이블에서 덕담 편지를 읽는 연습을 하는데 눈에서 자꾸만 눈물이 쏟아지더군요. 나이가 나이인지라 수많은 결혼식을 다녀봤지만 자녀의 결혼식 때 우는 혼주들을 본 기억이 없는데 저는 새벽부터 눈물 바람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난 가족들에게 말하니 웃고, 아내는 "으이구~ 잘한다. 주책이야. 진짜" 면박을 줬습니다.

그렇게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드디어 딸의 결혼식장. 생각보다 긴장되지는 않았습니다. 정신없이 하객들을 맞이하느라 긴장은커녕 진이 다 빠지더군요.

화촉 점화와 사위의 신랑 입장과 저와 딸의 입장 후 그리고 저의 덕담 시간이 되었습니다.

정성스레 준비한 덕담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 소절도 무리 없이 통과하며 덕담 편지의 중후반이 되었을 때 저의 목울대가 갑자기 울렁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새벽처럼 눈물을 바가지로 쏟는 일이 발생할까 봐 잠시 멈추고 숨을 가다듬고 다시 읽어 내려가는데 제 목소리는 물을 잔뜩 머금은 것처럼 푹 젖은 상태였죠. 그러나 전 울컥했을지언정 눈 밖으로 눈물은 내보내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덕담 편지를 읽고 간간히 농담도 던져가며 잘 마쳤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의 순서가 끝나고 밥 먹는 장소로 이동하는데 큰딸과 조카가 제게 묻더군요.

"아빠, 편지 읽을 때 울었어?"

"큰아버지, 설마 편지 읽다가 우신 거예요? 대박이다."

이러한 반응은 가족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하객들로 온 친구들과 지인들마저 제가 덕담 편지를 읽다가 울었다고 오해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순간, 억울하더군요. 저는 울지 않았는데 이미 온 사람들에게 눈물을 수도꼭지처럼 흘린 신부의 아버지로 소문이 난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덕담 편지를 읽는 저의 바로 앞에서 듣던 딸과 사위도 제가 편지를 읽다가 울었던 걸로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저 안 울었습니다"라고 해 봤자 저는 이미 아내에게는 주책맞은 남편, 큰딸에게는 눈물 줄줄 흘린 아빠, 작은딸과 사위에게는 눈물의 달인.

그리고 하객들에게는 요즘 말로 흔히들 표현하는 '딸바보'로 굳어져 버렸죠. 딸바보라는 것은 맞는 사실이기에 굳이 정정할 필요는 없지만 나이 61살에 울보라고 저의 이미지가 굳어진 것은 어떻게 바꿀 방법이 없는 걸까요?

저는 작은딸의 결혼식 날, 덕담 편지를 읽을 때 그저 울컥했을 뿐이고 제 눈 밖으로 눈물을 내보낸 건 결코 아니었는데 말입니다. 이미 굳어진 저의 눈물 이미지를 바꾸기는 어려워 보이고 그냥 눈물의 아버지로 살아야 되는 걸까요?

작은딸이 결혼한다고 하니 조금 복잡한 감정에 울컥하고 그날 새벽에 울었던 것은 맞지만 결혼식장에서 덕담 편지를 읽던 순간에는 결코 울지 않았습니다.

하긴 이런들 어떠하고 저런들 어떠하겠습니까? 제가 눈물의 달인으로 소문이 잘못 번졌어도 작은딸과 사위가 너무 잘 어울려서 보기 좋아 보인다는 말도 같이 들려오니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우리 작은딸과 사위, 내가 결혼식 때 말했던 것처럼 서로의 단점을 바꾸려고 하는 것보다는 서로의 장점을 더욱더 확대해서 보면서 살길 바란다. 잘살아라.

Letter 08

청년 간병

애청자

저는 최근 대구에서 일어난 청년 간병 살인사건을 보고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부모님 그리고 한 살 위 형이 한 명 있습니다. 제 아버지는 신부전증이라는 병을 지금도 앓고 계십니다. 처음 병을 알았던 시기는 1992년 제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였습니다. 아버지는 평소처럼 회사를 다니고 계셨는데 몸이 아파서 동네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어머니도 일하고 계셨지만 간병을 위해 병원에 머물러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 퇴원하셨고 다시 직장을 잡으려고 여기저기 알아보셨습니다. 그때가 저 중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갑자기 몸이 너무 안 좋아져서 큰 대학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중환자실에 입원해서 면회는 하루에 두 번밖에 되지 않았고 어머니는 중환자실, 집, 중환자실, 집, 이렇게 반복된 일상을 사셨습니다.

저희 집은 전세로 살고 있었는데 당장에 수술을 해야 한다는 의사 말에 어머니는 병원비 마련을 위해 애쓰셨습니다. 한참 사춘기에 접어들 무렵 집은 점점 어려워졌고 저희 집은 전세에서 월세로 월세에서 보증금이 없는 지은 지 40년 된 방 두 칸에 화장실이 밖에 있는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는 더 어려워져서 아르바이트를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입학하자마자 학교 근처 치킨집 주방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1995년 당시 시급이 1,650원. 학교를 마치고 바로 아르바이트하는 곳으로 가면 5시간을 일할 수 있었습니다. 8,250원이라는 돈은 제가 5시간을 열심히 일하여 번 돈이고, 매장 매니저에게 사정을 말하고 부탁해서 쉬는 날 없이 쭉 일주일 내내 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병원비를 대기에 터무니없이 모자란 돈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혈액투석을 위해 수술을 해야 하는데 3천만 원이 든다고 했습니다. 저희 집 형편으로 도저히 낼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바로 위 형도 일을 했지만 당시 학생이 일할 수 있는 곳은 별로 없었기에 저임금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정도였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 병간호로 일을 놓으셨고 우리 형제는 아르바이트를 끝내고 늦은 밤에 돌아와 잠을 청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수술비에 중환자실 입원료 등등으로 전세로 있던 집부터 사글세 집으로 오기까지는 정말 빠른 시간이었습니다. 돈이 없어 친척들에게 부탁도 해봤지만 너나 할 것 없이 멀어지더군요.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형은 대학 진학을 포기한 후 바로 사회생활을 했고 저는 방학이면 두 개의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젊고 어린 나이기에 몸은 버틸 수 있었지만 제가 번 돈은 네 식구의 생활비와 차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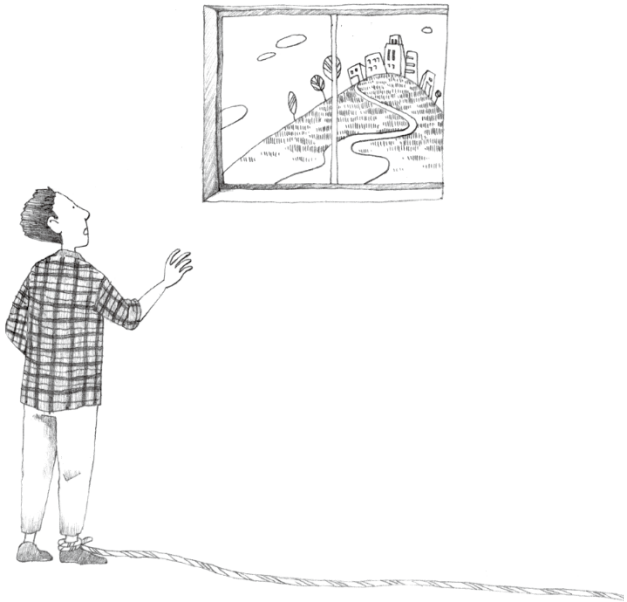
저 역시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일을 해서 힘들어진 가정에 보탬이 되고자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생활비와 병원비로, 대출에 카드이자 등이 무섭게 불어나서 아무리 갚아도 빚 갚으라는 독촉 우편밖에 남질 않았습니다. 도망가서 혼자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나를 낳아주고 키워준 부모님인데 나 혼자 편하자고 도망가는 건 아닌 거 같아서 끝까지 버텼습니다.

이자만 갚으며 살아가던 중, 형의 입대 소식에 저 혼자 짊어질 무게가 너무나 컸습니다. 스무 살의 친구들은 대학을 다니면서 MT도 가고 여자친구도 생기고 너무 행복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당장에 다음 달 보일러 기름값과 생활비를 벌기 위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비참했습니다.

저에게도 입영통지서가 왔고, 군에 안 가려고 병무청에 문의해봤지만 신체 건강하고 결격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현역으로 입대 해야만 했습니다. 어머니는 편지에 "집 걱정은 하지 마라. 어떻게든 살아볼게" 그리 쓰셨지만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받은 월급과 보너스를 모아 집에 보내주곤 했지만 모래사장에 작은 알갱이조차 되지 않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군대 가 있는 동안은 일주일에 세 번의 혈액투석 금액을 나라에서 지원 받을 수 있었고 아버지는 서울에서 무료로 투석을 받을 수 있는 의정부까지 다녀야만 했습니다. 투석이 끝나면 온몸이 젖은 솜처럼 움직일 수 없어 일을 하지 못했고, 간병에만 힘쓴 어머니는 몸이 남아나지 않아서 경제활동이 힘들 정도였습니다.

누구는 제대 후 직장에 다니면서 돈을 차곡차곡 모았다지만 저는 0이 아닌 마이너스 1,500만 원으로 시작했습니다. 당시 부채의 이자를 탕감해주는 조건으로 원금을 일시 상환하면 이자 없이 빚을 없애



준다는 말에 어린 나이에 은행이나 캐피탈에서 대출을 최대한 받아서 갚아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차를 산 것도 아니고 흥청망청 산 것도 아닌, 그저 아버지 병원비 때문에 생긴 빚을 갚아야 하는 현실은 무거웠지만 어린 저를 철들게 했고 또한 모진 사회에서 살아남는 방법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신부전증 합병증으로 앞도 보지 못하고 다리 한 쪽을 자르는 수술로 인해 몸이 만신창이가 된 아버지는 아직도 혈액투석을 위해 일주일에 세 번 병원에 가십니다.

뉴스에서 본 대구 간병 청년은 제가 겪은 그대로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에 누구보다 가슴 아팠습니다. 과연 누구의 잘못일까요. 사회의 잘못일까요. 그 청년의 어려움이 만든 환경이 잘못일까요.

Letter 09

벽화를 그리는 청소부

안경희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한가울길

중문 만드는 회사에서 청소 일을 시작한 지 3개월. 전에 여성시대에 '청소 일에 대한 편견을 깨기까지'라는 사연을 보낸 것처럼 얼마나 버틸까 스스로 장담 못할 정도로 등 떠밀려 마지못해 시작한 일이었는데 벌써 3개월이라니. 그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다.

청소 일을 한다니까 친한 언니는 이런 엉뚱한 소리도 했다.

"너 미술 전공한 애가 청소만 하긴 아까워. 중문 디자인을 새롭게 해서 사장님 옆으로 지나가며 살짝 흘리는 거야. 어때?"

"언니, 지금 드라마 써? 말이 되는 소리를 해."

그런데 가끔은 현실이 더 드라마틱할 때가 있다. 점심이 직원 수대로 배달되어 오는데 어느 날 전무이사님과 우연히 같은 자리에서 식사하게 되었다. 대화 도중에 벽화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내가 미술을 전공했다는 얘기까지 자연스레 흘러 나왔다. 전공이 동양화였고 결

혼 전 직업도 그림쟁이라 벽화에 도전해보고 싶다고 살짝 생각을 비쳤는데 다음날 사장님께서 부르셨다. 사장님께서는 회사 계단 유리로 된 난간을 가리키며 말씀하셨다.

"우리 회사 3층이 중문 전시관이라 아이들도 가끔 부모님과 함께 오는데 이 유리가 위험해서요. 여기 나무 합판을 끼우려 하는데 벽화를 그려줄 수 있나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당황했으나 마음 구석에서는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치고 올라왔다. "네,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손을 놓은 지 16년. 삼십 대 초반까지 배경 그리는 프리랜서로 활동하다가 모든 작업이 컴퓨터화 되고, 농사일 많은 시댁 근처로 이사 오면서 그림 대신 농사일과 시부모님 간병, 아이들 키우기로 그림과 담쌓고 살던 내가 무슨 배짱이었을까. 선뜻 '하겠노라' 대답하고 말았으니 말이다.

사장님께서는 다음날 난간에 끼울 흰색 페인트로 칠한 합판 16장을 주셨고 아크릴물감도 제공해주셨다. 바닥을 닦고 화장실을 청소하던 내가 벽화를 그리다니! 그 후 청소일이 끝나면 벽화에 들어갈 밑그림 작업에 들어갔다. 회사에 남아 늦게까지 밑그림을 그리고 채색하기 시작했다.

개울가에서 물고기 잡고 멱 감는 아이들, 딱지치기 하고 연 날리며 모닥불 지피는 6~70년대 아이들의 푸근한 정서를 한 장 두 장 그림에 담아 스토리 펼치듯 이어 나갔다. 첫 번째 그림과 두 번째 그림이 달랐고, 뒤로 갈수록 디테일과 색감이 살아났다. 이십 년 가까이 그림을 쉬었던 내가 이 작업을 잘 해낼 수 있을까 했는데 두려움과 불안감은 시간이 갈수록 자신감과 더 잘하고픈 욕심으로 바뀌어 갔다.

어느 날 그림을 보신 사장님께서도 "정말 대작입니다. 아주 좋아요. 사람들의 동심을 이끌어낼 것 같습니다" 하고 칭찬해주셨다. 오랜 시간 직원들을 가족같이 아끼고 지역에서도 평판이 좋은 회사와 사장님을 만나다니 자존감이 바닥을 치며 우울감과 절망의 끝자락에 있던 내게 얼마나 큰 행운인가.

언젠가 사장님께 조심스레 여쭈어보았다.

"왜 제게 벽화 작업을 맡기셨나요?"

사장님의 답은 단순명료했다.

"여사님이 벽화를 그리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그보다 더 큰 이유가 있나요?"

사장님께서는 회사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나를 청소일 한다고 결코 낮게 보지 않고 내 작은 가능성 하나를 보고 벽화 작업을 믿고 맡기셨다.

벽화 작업을 위해 밤새우는 일이 많아져 피곤하지만 그림 속 아이들에게 다양한 예쁜 색을 입히고 순진무구한 그들의 표정과 몸짓이 완성될 때마다 느끼는 희열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 사장님께서는 작품이 끝날 때마다 난간 쪽에 하나씩 설치해 아무도 못 보게 포장한 후 다 완성되면 모든 사람들에게 "짠!"하고 보이고 공개하는 날 축하 파티도 열겠다고 하셨다.

작품 크기가 커서 한 장 완성하는데 3~4일이 소요되는 대작이라 체력 소모가 크지만 나중에 전시관을 찾는 많은 분이 볼 생각을 하니 그 모든 힘듦은 기꺼이 감수할 만하다.

딸이 청소 일을 하게 되었다고 고백했을 때 내게 줄 오이소박이를 담그다 끝내 우신 우리 엄마. 벽화가 완성되는 날 엄마를 모시고 와서 딸이 그린 벽화를 꼭 보여드리고 싶다. 작은 가능성을 보아주고 기회를 주신 회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Letter 10

엄마의 복주머니

윤미진 | 경기도 부천시 원미동

시골에 가면 방 안 구석 장롱 문고리 앞에 색동의 복주머니가 걸려있다. 누가 보면 저 낡은 것을 왜 안 버리고 두었나 하겠지만 난 그것의 의미를 알기에 버릴 수가 없다. 깨끗이 빨아 빈 주머니에 2만 원을 넣어두었다.

6년 전 겨울, 엄마는 홀로 계시다 찬 바닥에 쓰러지셨다. 대소변이 범벅이 된 상태에서 119 구급차를 타고 대학병원에 가셨고, 재활병원과 요양병원을 거쳐 지금은 요양원에 계신다.

당시 그 복주머니 속엔 돈도 어느 정도 있었다. 그 돈은 동생이 은행에다 넣고 복주머니만 내게 돌아왔다.

코로나19 이전엔 엄마의 생신이나 내 휴가에 맞춰 시간이 될 때마다 엄마를 시골집에 모셔 오곤 했었다. 엄마에게 복주머니를 보여주면 엄마는 한참을 만지작거리셨다. 난 빈 복주머니를 보여주면서 "엄

마, 그 많은 돈은 어디가고 이제 복주머니만 달랑 남았네. 복주머니 대신 기저귀를 차고 있으니 어쩌면 좋아?" 그러면, 엄마는 "그러게 내가 이렇게 돼버렸네. 어쩔 수 없지 뭐" 하셨다.

어릴 때 부엌 옆 장독대 밑에 엄마가 땅을 파는 걸 보고 몰래 파헤쳐서 그 안에 든 돈으로 맛난 과자를 사 먹기도 했다.

생활력이 없는 아버지 때문에 엄마는 높은 산으로 가 나물을 뜯고 그걸 팔아 나와 동생의 학비를 마련해주셨다. 시골에 가서 엄마가 나물을 뜯던 산을 바라보면 그 높은 산을 오르내렸던 엄마 생각에 마음이 아리다.

겨울이면 남의 집 하우스 일을 계속하시다가 팔십이 넘어서면서 엄마는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셨다. 여기저기 안 아픈 곳이 없었다. 엄마는 동사무소에 가서 간신히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여 그 돈으로 생활을 할 수 있었다. 엄마는 그 돈도 아까워 반도 쓰지 않고 북주머니 안에 넣고 사셨다.

한 번씩 시골에 가면 엄마는 엄마의 금고인 복주머니를 개봉하셨는데 꼼꼼하게 얼기설기 옷핀으로 엮어 놓은 것을 풀고 또 풀은 후에야 돈이 나왔다. 그 목숨과도 같은 돈을 엄마는 다음날이면 집으로 가는 내게 주셨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이면 기차 타고 가면서 뭐 사 먹으라고 또 돈을 꺼내주셨다. 그렇게 아끼고 아낀 돈을 주시곤 했다. 당시 남편의 벌이가 시원치 않아 엄마의 그 돈을 거절하지 않고 받아오면서 너무도 죄송했다. 난 엄마에게 해드린 것이 없는데 엄마는 주고 또 주셨다.

나는 엄마가 체격이 어느 정도 있는 줄 알았다. 그런데 어느 날 목욕탕에 함께 갔는데 깜짝 놀랐다. 엄마는 입고 또 입고 또 껴입고 있었던 것이다. 겨울 추위에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는 집에서 옷으로 추

위를 견디고 계셨던 모양이다. 팔다리가 드러나자 얼마나 앙상한지 보기도 죄송스러웠다.

중학교 때 일어난 사고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조인다. 그날 엄마는 장에 가려고 준비 중이셨다. 나는 학교에 가기 위해 막 집을 나서고 있었다. 엄마는 장에 가기 전 소여물을 주기 위해 작두질을 하고 계셨는데 비명소리와 함께 두 손을 감싸며 마당에 나동그라지셨다. 작두에 손가락 두 개를 잃으신 거다. 나는 정신없이 논으로 간 아버지를 불렀고 아버지와 함께 엄마는 병원에 가셨다.

그날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니 집안은 휑하니 조용했다. 부엌에서 아버지가 가마솥에 밥을 짓고 계셨다. 그리고 이틀 후 엄마가 돌아오셨다. 학교를 마치고 집에 오면 엄마의 손가락에 붉은 약을 바르는 게 내 일이었다.

제대로 된 치료도 없이 그냥 세월이 흘렀다. 엄마는 겨울이면 손끝이 시리다 하셨다. 그 시린 손으로 들로 산으로 다니며 악착같이 돈을 벌어 복주머니를 채워 넣으신 거다. 조금씩 모아지면 은행에 가져가기도 했지만 엄마의 금고는 항상 복주머니였다.

아버지는 술로 사시다가 농약을 드시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셨다. 야간 고등학교에 다니던 나는 그날 왠지 아버지 생각이 나서 평소 신고 싶어 하시던 구두 살 돈을 준비하여 집으로 향했다. 동네 어귀 가게에 가서 아버지 드릴 소주 한 병을 사려는데 아주머니가 얼른 집에 가보라고 하셨다. 대문에 들어서니 마당이 분주했다. 흰옷을 입은 어르신들과 방안에서 들려오는 곡소리. 얼른 뛰어들어가 보니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였다.

술만 드시는 아버지와 중학교 사춘기 시절 참 많이도 부딪혔다. 거나하게 술에 취해 버스에 타신 아버지를 모르는 척하고 버스에서 내렸는데 뒤에서 내 이름을 부르며 달려오시던 아버지. 아침에 깨어나서 우리를 다정하게 바라보던 아버지. 그러다 이내 찬장 속의 댓병 소주를 찾아 술을 드시던 아버지. 난 그 모습이 싫어 아버지가 나가신 후 술병에 물을 채워 넣곤 했다.

오빠 셋이 있었지만 일찍 도시로 나가고 나, 여동생, 엄마와 아버지 이렇게 살았다. 오빠들도 배운 것이 짧아 저마다 살기 힘들었는지 부모에게 용돈을 보낸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나 보다.

지금 우리 형제는 고만고만하게 살며 서로 의지하고 있다. 예전엔 오빠들이 미웠는데 그래도 자기들 삶을 꾸려 살고 있으니 다행이다 싶다. 이제 나만 잘살면 된다.

한 달에 한 번 밀양과 부천을 오간다. 엄마의 빈집을 쓸고 닦고 마당의 풀을 뽑고 약을 치고 넘어진 돌담을 정리하고 엄마를 보러 간다. 활짝 웃으며 나를 반기는 엄마에게 "내가 누구야?" 물으면 엄마는 "우리 딸이지" 하신다. 나를 알아보신다는 게 감사할 따름이다.

엄마의 복주머니는 엄마를 기다리고 있을 텐데 언제 시골집으로 가실 수 있을지 모르겠다. 엄마의 고단함이 묻어 있는 그 복주머니를 엄마 손에 다시 쥐어드리고 싶다. 엄마가 덜 아프시고 조금 더 우리들 곁에 계셔주시길 이 못난 딸은 바라고 또 바란다.



Letter 11

딸에 대하여 엄마에 대하여

김현주 | 경남 밀양시 무안면 덕암길

큰딸아이가 수화기 너머로 기분 좋은 설렘을 전해왔다.

"엄마, 이제 준비 거의 다 했어. 모바일 청첩장에 들어갈 사진만 고르면 될 것 같아."

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에게도 있었던, 그러나 바쁘게 사느라 까맣게 잊었던 그 시간들이 떠올랐다.

30년 전 스물여섯의 가을날, 햇살이 하얗게 쏟아지고 있었다. 두근거리는 맘으로 장롱이며 냉장고를 눈여겨보던 나에게 "안 돼! 절대 안 돼! 엄마 말 들어. 너, 그 사람이랑 살면 후회해!" 엄마는 말했고 나는 야멸차게 반항했다.

"싫어! 난 이 사람이랑 무슨 일이 있어도 결혼할 거야. 절대 후회 안 해!"

사랑이란 게 밥 먹여 주진 않아도 적어도 힘들 때 견딜힘을 줄 거라

고 스무 살에 만난 내 첫사랑, 내 남자를 목숨 걸고 사랑한다 말하던 무지하게 용감한 내가 있었다.

가난한 사위가 내키지 않았던 마흔 중반의 엄마도 '친정엄마 노릇'은 처음이라 심하게 억지를 부리셨다. 말도 안 되는 화를 냈다가 심통을 부렸다가 그 복잡 미묘하고 착잡했을 엄마 심정을 쉰 중반이 된 이제야 고개를 끄덕이며 조금 이해한다.

함진아비가 들어오던 날, 부엌에서 음식 준비를 하며 눈물 훔치던 엄마에게 "엄마, 왜 울어? 눈에 뭐 매운 거라도 들어갔어?"라고 말하던 눈에 콩깍지 씐 큰딸이 엄마는 얼마나 야속했을까.

상견례 하던 날, 그이의 엄마에게 너무나도 예의 바르고 싹싹하게 굴던 큰딸의 뒤통수가 얼마나 얄미웠을까.

혼수 준비에 버거워 혼잣말로 "에고, 너무 비싸다" 말하던 엄마에게 "엄마, 나는 이런 거 하나도 없어도 돼. 나는 그냥 그이랑 같이 있을 수만 있으면 다 좋아!" 말하던 내 얼굴이 얼마나 미웠을까.

요즘 혼수 준비에 결혼식까지 알아서 척척 하는 딸이 가끔씩 내게 던지는 "엄마, 내가 다 알아서 할게요"라는 말에 내심 서운해지는 처지가 되고 보니 이제야 그때의 우리 엄마의 마음을 조금은 알 듯하다.

좋아하는 사람이랑 함께한다는 것만으로 무조건 행복해하던 내가 부족한 깜냥으로 살가운 말 한마디 엄마에게 하지 못한 탓에 쉰여섯의 나는 요즘 가슴이 먹먹해질 만큼 속상하다.

살아간다는 건 하고픈 걸 위해서 해야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할 수 있는 일에 열정을 다해야 하는 것이라는 걸 그때도 나도 알고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 나이 스물에는 한 남자를 만나 연애질하느라 두근거렸고, 서른에는 두 딸 키우면서 서툰 엄마 노릇하느라 바빴고, 마흔에는 갑자기

소를 키우자는 남편에게 맞장구치느라 바빴다.

그리고 이제 내 결혼식을 딱 한 달 남기고 쉴 새 없이 부딪혔던 엄마와의 모서리가 환하게 웃는 내 큰딸을 보며 둥그러지고 있다.

딸이 보내온 사진 속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아이의 모습이 얼마나 이쁘던지.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기숙사 생활을 시작한 딸이어서 벌써 11년째 엄마 품을 떠나 살아온 셈인데도 막상 결혼을 한다니 맘 한쪽이 서늘하다.

대학병원 응급실에 근무하느라 코로나19 위기 상황으로 재작년부터 얼굴 본 횟수가 딱 두 번인데도 늘 곁에 두고 지내온 양 아쉽기만 하다.

허전한 속을 달래려 친구에게 전화를 했다.

"미자야, 인자 내 큰 딸내미 결혼하고 나면 서툰 엄마 노릇 하는 거 한 명 몫은 끝난 거 맞제? 묘하게 해방감이 든다 아이가~."

"뭐시라카노. 야가 참말로 시상 물정 모리는 소리 허네. 서툰 엄마 노릇이 차라리 낫제. 니 친정엄마 노릇 한 번 해 봐라. 어디 그런 말이 나오는가."

내 말에 확! 찬물을 끼얹는 친구의 대답에 '아! 역시, 난 아직 초짜다' 싶다. 새파랗게 달려오는 겨울 하늘이 서늘하다.



Letter 12

중고 거래에서 사기 당하지 않는 방법

권은희 |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나는 필요한 물품이 있으면 종종 인터넷을 통해 중고제품을 구매한다. 그래서 우리 집에는 승용차, 컴퓨터, 모니터, 프린트, 책, 이어폰, 축구화 등 중고제품이 많다. 새 제품 안 사고 왜 중고품만 자꾸 사냐며 투덜거리던 아들도 이제는 웬만하면 인터넷 중고 사이트에서 싸게 구매하고 필요 없으면 인터넷을 통해 다시 팔곤 한다.

3년 전쯤 모 유명 청소기가 유행할 때 100만 원 가까이 되어 사기에 부담스러웠다. 검색하다 보니 새 제품을 인터넷 최저가보다 20만 원이나 저렴하게 파는 사람이 있었다. 결혼하면서 청소기를 샀는데 같은 청소기를 선물 받아서 하나를 싸게 파는 것이라고 적혀 있었다. 판매 지역은 나와 있지 않았는데 판매자의 거래내역을 찾아보니 보통 사람들과 비슷했고 특이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다. 내가 찾던 제품이고 가격도 싸서 사고 싶은데 '그동안 다른 사람한테 팔렸으면 어떻게

하지?'하며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전화했다. 청소기 구매할 수 있느냐고 물으니 가능하다고 했다.

"그럼 판매 지역이 어디세요?"

그쪽에서는 강원도 태백이라고 했다.

"예? 강원도 태백이라고요?"

태백이라는 말에 의심이 들어 더 확인하고 싶었다. 제품에 이상 없냐고 했더니 포장도 뜯지 않은 새 제품이고 신혼부부가 싸게 파는 것이니 걱정 말라며 안심시켰다. 다른 사람과 가격을 흥정하는 중이었는데 내가 바로 구매한다면 3만 원 더 싸게 판다고 빨리 입금하라 독촉하며 계좌번호를 보내왔다. 구매자의 마음을 급하게 만들어 빨리 입금하게 하는 것 같았다. 중고 거래 경험이 많은 나는 판매자의 반응을 보기 위해 일부러 말했다. "싸게 주신다니 감사합니다. 마침 잘됐네요. 태백에 지인이 살고 있는데 저 대신 보낼게요." 그랬더니 자기는 바쁜 사람이라 직거래가 어렵다며 입금하면 바로 택배 보내고 송장을 찍어 보내겠다고 했다. 직접 거래가 가능한 시간을 알려주면 지인을 보낼 테니 주소를 대라 했더니 갑자기 "재수 없다"고 욕하며 전화를 끊어버렸다. 내 판단이 옳았다. 사기 판매를 하려고 했는데 내가 속아 넘어가지 않고 직거래를 하겠다고 했더니 전화를 끊어버린 것이다.

또 한 번은 TV가 오래되어 찾고 있었는데 6~70만 원에 거래되는 중고 TV를 30만 원에 판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게 웬 떡이야?' 하면서 자세히 읽어보았다. 판매 게시글에는 사무실을 급하게 정리하는 중이라 싸게 판다며 사무실과 사무실 비품을 찍은 사진까지 올라와 있었는데 이번에도 판매 장소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온 지 3시간 흘렀을 때 전화해서 거래가 가능하냐고 물었다. 그랬더니 급하게 정리하느라 워낙 싸게 내놓아 사려는 사람이 많다며 TV에 자기 전화번호를 붙여 찍은 사진까지 보내며 빨리 입금하라고 했다. 사무실 위치가 어디냐 물었더니 전남 해남이라고 했다. 이번에도 뭔가 이상한 느낌이 왔다. 그래서 해남 어디냐고 했더니 해남군 00면 00리 00번지라고 했다. 급하게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같은 번지에 건물이 존재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미심쩍어 지난번처럼 "마침 해남에 지인이 살고 있는데 1시간 후에 보내겠다"고 했더니 시간 낭비했다고 투덜거리며 전화를 끊어버렸다. 싼 물건 욕심내고 입금했다면 100% 사기 당할 뻔했다.

그동안 인터넷으로 중고 거래하면서 내 나름대로 조심하고 철저히 하다 보니 다행히 아직까지 사기 당한 일은 없다.

인터넷으로 중고물품 거래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직거래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직거래를 할 수 없다면 돈을 보내기 전에 다음 4가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조심해야 한다.

첫째, 직거래를 피하고 택배로만 물품을 보내겠다고 하는 사람.

둘째, 판매 지역을 게시하지 않거나 거리가 멀어 가기 쉽지 않은 지역.

셋째, 돈을 빨리 입금하라고 독촉하는 경우.

넷째, 일반적인 시세보다 많이 싸게 파는 경우 등이다.

정말로 돈이 급해서 또는 필요 없는 물건이라 싸게 팔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시세보다 많이 싸게 파는 경우에는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뉴스를 들으니 2020년에 경찰에 신고된 중고거래 사기가 약 12만 건에 피해 금액은 900억 원 정도 된다고 한다. 신고 되지 않은 건수까지 합치면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요즘같이 서민들이 어렵게 살아가는 시대에 인터넷 사기 거래에 연루되어 고통당하는 분이 없기를 바라서 경험을 나누었다.

Letter 13

내 인생의 황혼기

김경자 |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약 30년 전부터 여성시대를 통해 꼭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매번 눈물이 앞을 가려 포기했습니다. 이번엔 끝까지 써보려고 합니다.

저는 1954년생 말띠입니다. 5남매 중 셋째로 태어나 할머니 포함 15명의 대가족과 살았습니다. 3살 되던 해, 제 몸에 소아마비가 왔다고 들었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했던 살림에 한약 5첩을 먹이면 정상으로 걸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3첩까진 먹였는데 아장아장 걷기 시작할 때 그만 더 이상 먹이지 못했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저는 소아마비 증세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땐 놀림도 많이 받았고 성격이 삐뚤어졌습니다. 초등학교 졸업하고 서울에 사시던 셋째 작은엄마 집에서 가내공업 허드렛일 하면서 1년 정도 지내다 적응 못하고 다시 울산으로 내려와 섬유 공장에 입

사했습니다. 차비 15원을 아끼려고 4킬로미터 먼 길을 걸어 다니며 주야간으로 일하면서 청소년기를 보냈습니다. 한쪽 다리는 눈에 띄게 가늘어졌고 아무리 더운 여름이라도 치마나 짧은 바지를 입지 못했습니다. 남들과 다른 신체 때문에 사람 만나는 걸 두려워했고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으로 사회생활이 힘들었습니다.

24살 때, 할머니의 중매로 현재 남편을 만났는데 남편 역시 찢어지게 가난해서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방황하다가 울산의 한 자동차 회사에 입사했고, 저랑 결혼해서 딸 아들 3살 터울로 낳고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막내가 5살 접어들 무렵, 제가 보험 영업을 시작했는데 저희 처지가 어려운지라 주변에 아는 분들도 많지 않고 사람 만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지만 회사에서 가르쳐주는 대로 고객과 친해지는 과정을 따르다 보니 한 건 한 건 계약으로 연결됐고, 희망도 보이고 보람도 느껴졌습니다. 물론 수없이 거절당하고, 개한테 물리고, 점심 거르기를 밥 먹듯 해서 위장병도 생겨 몸은 바람 불면 날아갈 정도로 야위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약을 지어 먹으며 현장에 나갔고, 그렇게 실적을 올려 3년 만에 팀장으로 발탁, 팀원을 최고로 많이 늘려서 수석 팀장도 됐습니다. 그 후로 5년 만에 '육성 지도장'으로 발탁됐지만 그건 제 인생 최대의 위기이기도 했습니다. 육성 지도장은 초등학교만 나온 실력으로는 감히 엄두도 못 낼 그런 자리였으니까요.

그 날 이후, 저는 중학교 검정고시를 준비했습니다. 퇴근 후 아이들을 재우고 다락방에서 혼자 독학하였습니다. 두꺼운 책이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고 피곤함은 참을 수 있었지만 잠이 오는 건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군요. 6개월 정도 공부하다 결국 포기하고 이론으로 해야 할 일을 친절과 겸손, 실적으로 채웠습니다. 그리고 2년 후 능력을 인

정받아 영업소장으로도 발탁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만 육성 지도장으로 발탁된 시점에 저의 담당 소장님께서 제 학력을 고등학교 졸업자로 위조하셨더라고요.

그 후 저는 학력이 부족한 만큼 남들보다 2시간 먼저 출근하고 2시간 늦게 퇴근하면서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꽤 많은 돈을 벌어 두 자녀 공부도 시키고 집도 사고 17년 동안 근무하다가 젊고 똑똑한 후배들에게 밀려 희망 퇴직했습니다.

이제 제 나이 67세, 저는 꿈에도 그리던 중학교에 다닙니다. 교복 입은 친구들을 보면 숨어서 숨죽이던 어린 시절, 부모님을 한없이 원망도 해보고, 남몰래 많이 울었지만 내 인생 누가 대신 살아주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 배우지 못한 한을 지금 와서 풀고 있는 우리 반 학우들의 평균 연령은 65세. 80세 넘는 언니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로하며 젊고 예쁜 선생님들께 어리광도 부려봅니다. 국가정원 태화강변에 모여 졸업사진으로 단체 사진, 개인 사진을 제각기 예쁜 척하면서 한 컷 한 컷 찍었습니다.

저는 지금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지난 44년간 정말 열심히 살아온 대가가 아닌가 싶네요. 전국에 저처럼 어린 시절이 불우했던 어버이들이여!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용기 내어 까막눈을 탈출해보세요. 세상이 크게 환하게 보입니다. 지금까지 움츠리고 산 가슴을 활짝 펴고 날개를 달아보세요. 훨훨 날아보세요.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살 순 없지요. 하지만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은 해야 합니다. 오늘도 저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용기 내어 입학한 울산 푸른학교를 졸업하면 고등학교 검정고시도 조심스럽게 꿈꾸어 봅니다.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우리 학교 교장 선생님과 모든 선생님, 정말 고맙고 사랑합니다.

Letter 14

승찬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길 바래

이진식 | 경기도 의왕시 새롬길

특수교육 현장의 교사인 나에게 장애라는 개성이 있는 아이들은 모두 특별한 존재로 다가온다. 개인적으로 가장 가슴 아프게 여겨지는 장애 중 하나는 근이영양증(筋異營養症, muscular dystrophy)이다. 유전성으로 보통 취학기 초기에 발병해 근력을 점점 빠지게 해서 곧 휠체어 생활을 하게 만든다.

6년 전에 처음 만난 승찬이는 중학생으로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초등학교 입학하고부터 자주 넘어져서 몸이 약해 그런 줄 알았는데 넘어지는 일이 반복되었고 근이영양증으로 진단받았단다. 대학에서 '지체장애' 시간에 근이영양증에 대해 배웠는데 치료제가 없고, 물리치료 등으로 진행을 최대한 늦추는 것만이 최선의 방법이라 더 안타까웠다.

승찬이를 처음 만났을 때, 조금 의기소침해 보였지만 학교생활을



즐겁게 하기 바라서 원하는 점은 언제든 말하라 하고, 평소에 친근하게 말 걸며 최대한 편안하게 해주려 노력했다. 힘들면 쉬게 하고, 원할 때는 언제든 도움반에 있게 하고, 좋아하는 음악도 틀어주고, 선생이 아닌 형처럼, 형이라 하기엔 나이가 많지만 형처럼 편안하게 다가가려 노력했다.

점심식사랑 화장실 지원은 지도사 선생님(보조 선생님)이 도와주시는데 지도사 선생님이 안 계실 때는 밥도 먹여주고 화장실에도 같이 다녀오며 많은 얘기를 나누었다. 곧 승찬이 얼굴에 미소가 감돌고 나에게 말도 잘 붙여왔다.

등하교는 어머님이 자동차로 시켜주셨다. 휠체어를 내리고 싣고 승찬이를 번쩍 들어 차에 태우고 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이 일을 매일 하실 수 있을까. 어머님이 감당하실 삶의 무게가 앞으로도 얼마나 될까. 그에 비하면 나는 편하게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에 반성도 했다.

종종 도와드렸지만 작은 도움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으리라. 승찬이 어머님은 항상 웃는 얼굴에 긍정적이셨고 작은 일 하나에도 고마워하셨다. 헌신적이고 매사에 감사하는 어머님처럼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리라 다짐했다.

2학년 때까지는 승찬이가 휠체어에 계속 앉아있을 수 있었는데 3학년이 되어서는 힘들다고 가끔씩 눕혀달라고 했다. 그러면 지도사 선생님과 함께 승찬이를 조심조심 들어 올려 매트에 눕혔다. 그런 때는 가슴 아팠지만 일부러 농담과 재밌는 얘기를 하곤 했는데 승찬이가 미소를 지으면 비로소 안심이 되었다.

승찬이가 폐렴에 걸려 보름 넘게 학교에 안 온 적이 있다. 면역력이 약한 친구들에게 폐렴은 치명적일 수 있다. 지도사 선생님과 병문안도 가고 승찬이가 다시 학교에 오자 도움반 친구들 모두 축하해주었다.

졸업식 날, 승찬이 어머님은 '장한 어머니상'을 받으셨다. 눈물을 살짝 보이시는 모습에 찡한 감동이 밀려와 고등학교 가서도 건강하고 즐겁게 생활하길 간절히 기도했다. 우리의 인연은 끝이 아니며 계속 만나리라 다짐했는데 승찬이가 고등학교에 진학한 3월 어느 오후, 어머님한테 문자가 왔다.

〈선생님, 학기 초라 많이 바쁘시지요. 승찬이도 고등학교 잘 다니고 있습니다. 선생님과 지도사 선생님의 따스함이 지금도 느껴지곤 합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그때 대학원 수업 중임에도 반가워서 강의실에서 살짝 빠져나와 전화드렸는데 승찬이 목소리까지 들을 수 있어 기쁘고 안심이 되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도움반에서 누워 있는 시간이 길어졌지만 승찬이는 학교 다니는 게 즐겁고 마음도 편안하다고 했다.

방학 때마다 승찬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사 들고 집에도 찾아갔다. 두 번째 갔을 때는 전에 없던 인공호흡기랑 의료기기가 눈에 띄었다. 혹시나 몰라 응급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준비해 놓으셨다는데 왠지 가슴이 철렁했다.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간 적도 있다. 그것도 두 번이나. 아이들을 어디 맡길 수도 있지만 장애를 간접 체험하고 배려심을 갖게 하려 같이 갔는데 그때도 어머님은 승찬이에게 말동무가 생겼다고 좋아해 주셨다.

고등학교 때도 폐렴에 걸려 학교에 못 가기도 했는데 잘 이겨냈고,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았지만 지난해 2월, 승찬이는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어머님이 보내주신 졸업식 사진을 보며 승찬이가 이렇게 건강하게 고등학교 과정을 무사히 잘 마쳐서 하늘에 감사했다.

며칠 전 어머님께서 전화하셨는데 지인이 농사지은 감귤을 보내신단다. 처음에는 사양했지만 받지 않을 수 없었다. 승찬이와 어머님을 생각하면 미안하고 감사한 마음뿐이지만 다시 갚아드리면 되니까 미안한 마음은 잠시 접어두리라.

졸업 후, 원하는 전공 과로 대학 진학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승찬이의 꿈은 현재 진행형이다. 승찬이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 꿈을 꼭 이룰 거라 믿는다.

승찬아, 사랑해! 승찬이 어머님, 늘 감사합니다!

이달의 손편지

요양원에서

신춘자 |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청명한 가을 날씨에 불타듯 붉은 단풍으로 주변이 환홀하다. 만추의 색깔이 이런것이 였던가?
코로나 19로 긴세월 동안 외부와의 단절로 계절의 묘미는 잊은지 오래되고 비대면의 면회방문은 가족들의 모습도 기억에서 가물가물 희미하다.
오늘은 이름하여 야외산책의 날. 휘커에 몸을 의지하고 요양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문하나 열고나와 하늘을 본다 더 없이 상쾌하다.
외부산책이래야 삼층인 나의 숙소앞에 마련된 정원인데 평소엔 치매 환자들의 위험 방지책으로 출입이 금지 돼 있어서 유리창 넘어에 눈요기밖에

안되는 그림의 떡이다.

더 안타까운것은 3,700평 넓은 대지에 안주한 요양원 주변은 수려한 수목과 화려한 야생화가 유혹하지만 걱정되는 코로나의 위세로 출입문을 이중 삼중으로 걸어잠구 니 세월이나 원망할뿐 한숨으로 달랜다.

이웃들이 말하는 젠틀 할아버지는 내 영감의 별명이다.

온화하고 양심적이며 미남인 영감의 신조가 남의 흠이나 남의탓은 절대금물이며 여편네가 큰실수로 재산의 손해가 났어도 우부싸움은 커녕 큰소리 한번 집안에 나는 법이없이 돌아가는 두 아들들에게 희망을 걸고 회초를 거쳐 90평생 사는 동안 자랑거리가 많고 쏴댔지만 팔불출은 되기싫어 이만주리련다.

꼰대없는 갑작스런 영감님의 별세는 나의건

강한 병력이였고 세상만사가 귀찮아 말리는 두 아들을 뒤로하고 생면부지인 산 속에 요양원으로 걱정근심을 한 아름 안고 들어왔다.

들어와 보니 하루세끼 갓 지은 5첩 반상에 세번에 간식은 풍족했고 일주일에 두번에 목욕은 과남했으며 세번의 물리치료와 노래교실, 원예치료, 가요무대 관람 등등에 바쁜 일정은 흥미진진하여 잡념으로 우울할 틈이 없이 분주하다.

주변은 모두가 환자이고 대부분 치매다 보니 때로는 다툼도 있고 시끄럽기도 하지만 요양원들의 재치로 웃음으로 화해하니 나와는 상관없이 생활이 편리하니까 들어 올때 근심 걱정은 한 날개 였고

내가 편찮다고 전하니 자식들 마음도
편하겠기에 내 인생에서 잘한것
한 가지가 요양원을 택한 내 인생이라고
자부한다.
자식들의 신세 안지고 걱정없는
나의 요양원 생활은 근면 성실했던
영감님 덕이라고 늘 생각하기에 나 혼자
누리기엔 민망해서 큰 아들을 시켜
시누님들에게 과연 상자를 보내 틀렸더니
요양원에 환갑가 선물을 받니다니 고맙다는
침소 봉대의 과찬은 나를 울렸지만
마음만은 편했고 기분은 좋았다.
아- 오늘의 1만족는 더욱 화창하고
행복해서 좋았다.

여성시대 사진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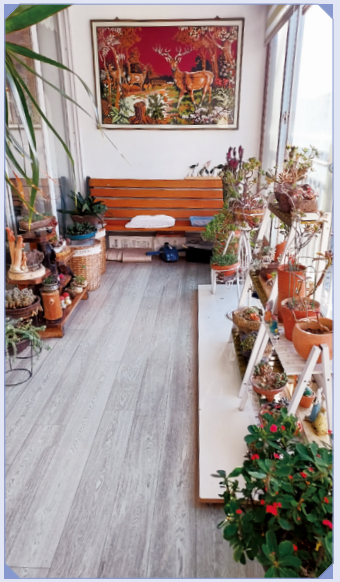
[1718] 바깥은 서리가 가득 내려앉았는데 하우스 안은 따뜻합니다. 수족냉증으로 겨울이 무섭지만 그래도 따뜻한 곳에서 푸릇한 토마토 열심히 키우고 있어요.



[9933] 가락시장 양파 작업장입니다. 아주머니 네 분 아침부터 퇴근까지 MBC 고정입니다.



[9927] 저희 가게는 1955년에 시아버님이 부평에 최초로 만든 자전거 가게입니다.



[3732] 방금 가스 점검하러 오신 분이 우리 집이 카페 같다고 기분 좋은 소리를 하고 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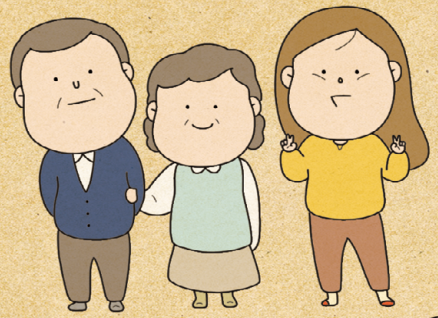
[9409] 은행에 가서 여성시대 12월호 챙겨왔는데 〈힘내고 가게 전국 안내지도〉 너무 유용하네요.

오늘의 추억

글/그림 2B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남원로
여성시대 가족 문의점 (가명) 님이
보내주신 사연을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아빠는 182, 엄마는 163, 누나는 172
가족들은 모두 키가 큰 편이지만



저는 키가 작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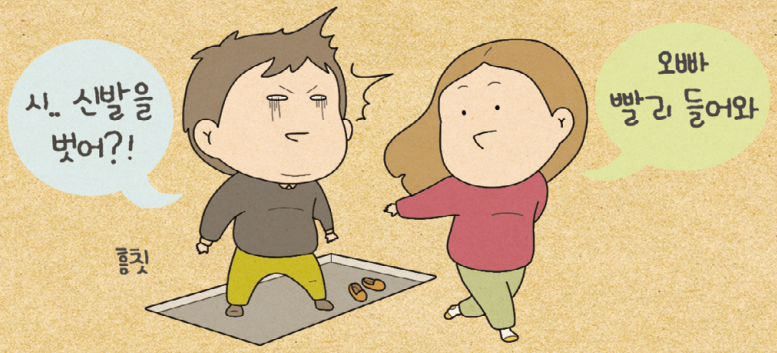


처음엔 가볍게 2cm로 시작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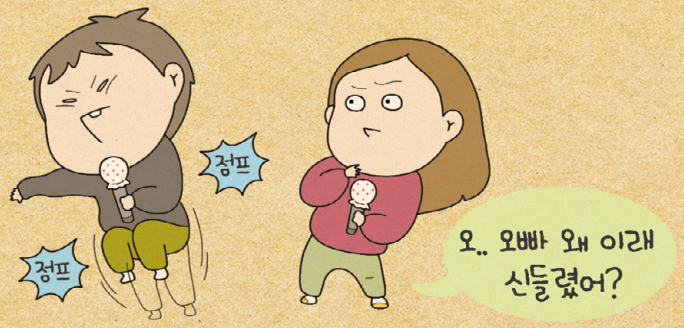


하지만 깔창의 맛을 본 저는
어느새 5cm 깔창에 중독되어 버렸습니다.

이 깔창 때문에 곤란한 상황은
시시때때로 일어나곤 했습니다.



썸녀와 함께 간
신발 벗는 노래방에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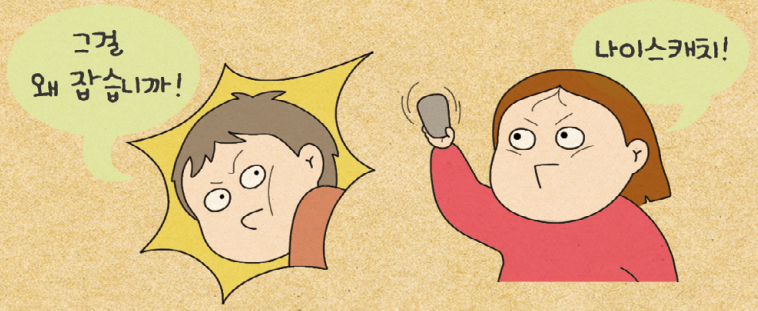


쉬지 않고 점프하다 과호흡이 오기도 하고,

대형 쇼핑몰 에스컬레이터에서 넘어져



신발 안의 깔창이 대공포 발사하듯
시원하게 포물선을 그리며 튕겨 나간 적도 있지요.





이렇게 내 친구 깔창과 함께한
아찔한 추억들이 많지만
그래도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키 말고도 보여줄 매력이
너무 많은 사람이니까요.

행복을 찾는 사람들 1

세계 속 숨은 명품 브랜드를 발굴하다

IBK기업은행 일산장항지점 거래고객

게이트비젼㈜ 김성수 대표

글 | **권내리**(자유기고가) 사진 | **이동진**

게이트비젼은 다이슨을 13년 전 한국에 처음 소개한 가전제품 수입유통 회사다. 높은 가격 탓에 처음에는 고전했지만 현재는 국내 무선청소기 시장을 선도하며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세계 방방곡곡에서 역사와 전통을 가진 브랜드를 찾아 성능 좋은 프리미엄 가전제품을 수입하고 있는 게이트비젼이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믿을 수 있는 PB(Private Brand) 론칭을 준비하고 있다.

게이트비젼은 프리미엄 가전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가전 유통업체다. 지난 2001년 설립하여 영국의 다이슨, 이탈리아의 이메텍, 스위스의 로라스타, 미국의 비셀, 아일랜드의 노바이러스 등 고급 프리미엄 브랜드를 직수입해 유통하고 있다. 국내에 소개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모두 역사와 전통을 가진 품질 제일의 브랜드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국내에 들여올 브랜드를 직접 발굴하는 김성수 대표에게는 엄격한 기준이 있다. 역사와 전통은 물론, 자체 기술을 보유하고 OEM 없이 장인정신으로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브랜드를 선택하는 것이다.

"제품에 대한 확신으로 브랜드를 들여오지만 시장에 내놓을 때까지 옳은 선택일까 끊임없이 자문합니다. 저는 상품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브랜드의 발전 가능성을 거시적으로 평가하고 홍보 마케팅, 디자인 팀의 디테일한 제품 분석을 통해 최종 수입을 결정합니다."



이런 철저한 검증을 통해 브랜드를 들여오고 있지만 모든 제품이 처음부터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은 것은 아니었다. 제품의 품질은 우수하지만 워낙 고가라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기 어려웠다. 13년 전 다이슨 청소기를 판매할 때는 판로가 없어 영등포역에서 좌판을 깔고 제품을 홍보하기도 했다. 이미 브랜드의 명성을 아는 사람들이 다이슨을 찾기 시작했고 입소문을 타면서 대성공을 거뒀다. 한참 인기를 끌 때는 다이슨 제품을 판매해 하루에 48억 원까지 매출을 올린 적도 있다. 게이트비젼은 국내에 다이슨 브랜드를 알린 공을 인정받아 국내에 지사가 들어온 이후에도 계속해서 다이슨 국내 총판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고객이 제품을 알아줄 때의 희열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수익을 올리는 것도 좋지만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때 가장 기쁩니다."

김성수 대표는 '내가 선택한 브랜드는 끝까지 책임진다'는 마인드로 수입과 브랜딩, 유통, AS까지 모두





맡아서 하고 있다. 아울러 미래지향적인 사고로 시대의 필요에 부합하는 상품을 발굴해 국내에 한발앞서 소개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고 있다.

인체에 유해한 오존이 발생하지 않고 살균력을 인정받은 아일랜드 '노바이러스 공기청정 살균기'는 코로나19 이후 더욱 찾는 이들이 늘었고, 카펫 문화가 일상화된 미국에서 사랑받는 '비셀 아쿠아 청소기'는 애완동물을 키우는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가 카펫 문화는 아니지만 애완동물의 배설물이나 털 때문에 소파나 침대 살균에 신경 쓰는 소비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 김성수 대표의 생각이 적중한 것이다.

"세계 방방곡곡의 좋은 브랜드가 국내에 소개되면 소비자들의 저변도 확대되고 선택권도 넓어진다고 생각해요. 국내 제품도 더욱 발전하고요. 다이슨이 들어와 국내 소비자들에게 사랑받았기 때문에 대기업에서도 무선 청소기를 내놓았잖아요. 세계 곳곳의 알려지지 않은 좋은 제품을 국내 소비자들에게 소개하는 것이 바로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IBK기업은행 일산장항지점 이상종 지점장은 "설립 초창기부터 IBK기업은행 일산장항지점과 인연을 맺은 게이트비젼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기업으로, 은행 입장에서는 굉장히 믿음이 가는 기업"이라고 칭찬했다. 덧붙여 "항상 노력하는 김성수 대표는 젊은 CEO의 모범"이라고 무한신뢰를 보내며 "앞으로 게이트비젼이 더욱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원천기술을 가진 리빙회사를 M&A를 통해 자체 브랜드를 론칭하겠다는 게이트비젼의 목표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길 응원한다.



게이트비젼 김성수 대표(왼쪽)와 IBK기업은행 일산장항지점 이상종 지점장

게이트비젼 김성수 대표의 운영 노하우

1. 좋은 제품을 찾기 위해 직접 발로 뛰어라.
2. 역사와 전통이 있는 브랜드를 발굴하라.
3. 유통부터 AS까지, 끝까지 책임져라.

게이트비젼㈜
대 표 김성수 **주 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111 게이트비젼빌딩
전 화 031-906-1543 **홈페이지** www.gatevision.co.kr

천연물신약의 세계화를 꿈꾸다

IBK기업은행 성남하이테크기업성장지점 거래고객
㈜제이비케이랩 장봉근 대표

글 | **권내리**(자유기고가) 사진 | **이동진**

제이비케이랩은 천연물신약과 천연 식물성 추출물로 만든 뉴트라슈티컬, 합성항암제를 연구개발하고 있는 바이오기업이다. 의학 박사이자 약사 출신의 장봉근 대표는 자연치유물질인 아로니아를 국내 최초로 도입하여 20여 년간의 연구개발을 통해 항암면역물질로 특허 출원 및 제품화에 성공하였고, 최근에는 부작용 없는 경구용 합성항암제 개발로 업계 주목을 받고 있다.



제이비케이랩은 천연물에 함유된 각종 유효성분을 이용하여 건강기능식품, 건강보조식품, 의약품 원료 등을 연구개발하고 제품을 생산하는 천연물 기반의 기능성 소재 바이오기업이다.

2008년 설립 이래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천연물질 아로니아로부터 C3G안토시아닌과 천연미네랄, 천연비타민 등 유효성분만을 분리 추출하는 데 성공했다. 아로니아는 600여 종의 안토시아닌 중 가장 강력한 안토시아닌으로 알려진 시아니딘을 제일 많이 함유한 약용식물로, 항산화 작용이 매우 뛰어나고, 강력한 세포신호전달분자(CSM)로 작용하여 해독 작용, 면역강화 작용, 혈류개선 작용, 줄기세포 활성 작용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안토시아닌은 우리 몸에 들어가면 2시간 만에 분해되어 효과가 떨어지는데, 제이비케이랩이 세계 최초로 안토시아닌에 다당체를 결합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약리효과가 10배 이상 늘어났다.

이와 같이 제이비케이랩은 식물영양소의 낮은 인체 흡수율과 체내 불안정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약리 유효성분을 강화한 뉴트라슈티컬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뉴트라슈티컬(Nutraceutical)은 영양을 뜻하는 Nutrition과 의약품을 뜻하는 Pharmaceutical의 합성어로 화학합성 의약품과 비교했을 때 약효는 대등하고 부작용은 없으며 생체이용률이 높아 소량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는 기능성 건강식품이다.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강력한 해독 항산화 작용을 가진 '시아플렉스', 세포막 재생에 효과적인 '유파플렉스', 유전자 교정과 생합성에 도움이 되는 '클로플렉스' 등이 있다. 특히 아로니아에서 추출한 항산화 성분인 활성형 시아니딘에 해조류에서 추출한 알긴산을 특수한 나노이온기술로 결합한 '시아플렉스 엑스'와 시아니딘에 천연 항암물질인 후코이단을 결합한 '시아플렉스 에프'는 각각 염증과 종양을 치료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으로 각광받고 있다.





"20여 년간 연구개발에만 치중하다가 지난 2018년 약국 전용 뉴트라슈티컬 브랜드 '셀메드(CellMed)'를 론칭하여 판매를 시작하였습니다. 현재 1,020여 개의 가맹 약국을 보유하고 있는데 저희 제품은 가맹 약국을 통해서만 판매되고 있어요. 올해 약 260억의 매출을 올렸는데 내년에는 600억까지 매출을 늘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 밖에도 제이비케이랩은 국내 최초로 산화와 변성이 일어나지 않도록 냉압착방식의 기술을 이용해 추출한 노유파지방산을 생산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합성신약 개발로 영역을 넓혔다. 최근 혈액암과 피부암, 림프암에 효과가 있는 부작용 없는 경구용 치료제를 개발하여 업계 주목을 받고 있다.

"뉴트라슈티컬 브랜드 셀메드를 미국으로 확장하기 위해 미국에 법인을 설립했어요. 캘리포니아를 시작으로 미국 전역으로 확장하고 유럽과 아시아까지 진출할 계획이에요."



IBK기업은행 성남하이테크기업성장지점의 김희자 지점장은 "셀메드 브랜드 론칭 이후 급성장 하고 있는 제이비케이랩은 성남하이테크기업성장지점의 우량 고객"이라며, "최근 원활한 원료 수급을 위해 원료의 핵심 기지인 폴란드에 현지 공장 설립을 계획 중이신데 IBK기업은행이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것"이라고 약속했다.

의학적으로 효능이 입증되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사명을 다하고 있는 제이비케이랩이 머지않아 천연물 신약 시장의 세계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제이비케이랩 장봉근 대표(왼쪽)와 IBK기업은행 성남하이테크기업성장지점의 김희자 지점장

제이비케이랩 장봉근 대표의 운영 노하우

1. 의학적으로 입증된 효과적이고 부작용 없는 제품을 개발한다.
2. 좋은 원료를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
3. 가맹 약국이 함께 성장하도록 서포트한다.

㈜제이비케이랩

대 표 장봉근 **주 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464
전 화 070-4221-2091 **홈페이지** www.jbklab.co.kr

코너 속 편지



일러스트 | **조신애**

장용의 단·필·충

81 하늘에서 과일이 떨어져

85 군 부심 있습니다

90 날개 없는 식판이 날아다니다

사랑탐구생활

94 소중한 인연

98 등산으로 확인한 사랑

일요일엔 편지를

101 굳세고 알뜰한 순자에게

104 할아버지에게

106 어무이

108 하늘에 쓰는 편지

장용의 단·필·충

하늘에서 과일이 떨어져

양익성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제가 30개월 건강하게 군 복무를 마친 곳은 아침저녁으로 대남방송이 들리던 곳, 앞뒤 전부 산이어서 공기도 좋고 지뢰밭도 많았던 곳, 원통 12사단입니다.

82년 논산훈련소에서 1개월 훈련병 기간을 마치고 원통해서 못 살겠다는 바로 그 원통! 훈련소에서 자대배치 받고 그곳으로 가던 그날의 기억을 오늘 끄집어 내볼까 합니다.

제가 탄 열차는 늦은 밤, 연무대역을 출발했습니다. "간다 간다 열차 3소대!" 힘차게 외치며 출발했지만 기차는 지나가는 열차 다 비켜주고 어느 역에서는 한동안 대기하다가 또 아주 천천히 이동해서 새벽녘에야 수원역에 도착했습니다. 수원역 저 끝 편에 수인선 협궤열차가 보이더군요.

"아, 저거 타면 집에 가는데."

"야, 집 얘기하지 마."

"왜? 엄마 보고 싶냐?"

"야~ 엄마 얘기 하지 마. 눈물 나잖앙~"

손대면 톡 하고 터질 것만 같은 눈물방울을 달고 입대 한 달 남짓 된 초년병들은 보고 싶은 식구들과 달려가고 싶은 집에 대한 그리움을 억누르며 수원을 지나 청량리를 거쳐 춘천 103보에 도착했습니다.

"훈련병들은 이곳에서 3일 대기합니다."

내 자대는 어디인지 모른 채 3일을 보내고 나니 각 사단으로 분산된다고 하더군요. 연병장에는 관광버스와 군 트럭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관광버스를 타면 춘천에서 먼 곳으로 가는 거고, 군 트럭을 타면 춘천 근처래."

잘 알지도 못하고 아이들의 '카더라' 통신이 난무하는 가운데 드디어 제 이름이 호명되었고 저는 군 트럭을 타게 됐습니다. '아싸~ 춘천 근처네. 이 정도면 양호하지.' 안심하고 올라탄 트럭은 103보를 출발하여 소양강 꼭대기에 저를 내려줬습니다.

'어라? 여긴 입대 전에 친구들하고 놀러 왔던 청평사 근처 아냐? 그때 여기서 배 타고 놀았는데.'

잠시 추억에 잠겨 있던 그때. "신병들, 저 아래 배 보입니까?" 인솔자가 가리킨 곳은 선착장. 얼핏 봐선 배처럼 보이지도 않는 군 수송 배 한 척이 있더군요.

"네! 보입니다."

"저 배, 탑니다."

"나 수영 못 하는데 무서워."

"괜찮아. 저런 배는 천천히 움직이니까 별일 없을 거야."

울보 동기를 달래주려고 아무렇게나 한 말이었는데 배는 정말 아주 천천히~ 천천히~ 소양강 상류로 이동했습니다.

"건빵은 일인 당 한 봉지씩이다. 그리고 배가 움직이는 동안에는 군화 끈을 풀고 있도록! 실시!"

나중에야 알았지만 건빵은 이동 중 점심이었고 군화 끈을 풀라고 한 건 만일에 사고가 났을 때 수영을 해야 해서 내린 지시 같았습니다.

"야, 나 배멀미 하나 봐. 배는 고픈데 건빵이 안 넘어가."

"그래? 그럼 잠깐 나가서 바람 좀 쐬고 올까?"

다행히 배 위로 올라가는 건 간간이 허용돼서 동기와 함께 위로 올라갔는데 와우! 단풍이 절정이었던 시기. 소양강 양쪽으로 단풍이 좍 악 물들어있던 광경은 40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우와! 진짜 이쁘다! 야, 근데 너는 왜 또 울어?"

"너무 아름다워."

우린 잠시 군인이 아니고 민간인이 된 기분으로 가을 감성에 젖어 있었고, 배는 홍천과 인제 사이 신남 선착장에 멈췄습니다. 군 트럭이 대기 중이더군요.

'이거 도대체 어디까지 가는 거야?' 트럭은 알 수 없는 길을 또 달렸습니다. 44번 도로 인제 방향으로 가더군요. 편도 1차선 좁은 도로 위에서 관광버스 한 대가 저희 트럭을 추월하고 싶어서 옆으로 바짝 몇 번 이동하는 게 보였습니다.

근데 저희 앞쪽으로 차가 있는지 추월하려다 다시 뒤로 빠지고, 다시 추월하려다 또 뒤로 빠지더군요. 그때마다 버스에 탄 승객들과 눈이 마주치는 게 어색해서 저는 고개를 돌리며 먼 산만 바라보고 있었

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졌습니다. 그냥 우박이 아니라 간식 우박! 사과, 배, 감, 대추, 빵에 떡까지 짧은 순간에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보물들이 하늘에서 와당탕 떨어진 것입니다.

"우와! 과일이다! 우와! 빵! 나, 이 빵 대빵 좋아하는데. 너무 좋아."

트럭 적재함 바닥으로 사과가 이리 구르고, 배가 저리 구르고, 제 더플백 앞에는 떡이 떨어지고. 한참 배고팠던 훈련병 시절 그건 정말이지 상상도 못한 선물이었습니다. 근데 그 우박이 대체 어디서 떨어진 거냐고요?

"군인 아저씨들, 이거 받아라."

저희 옆으로 지나가던 관광버스에 타고 계신 승객 분들이 저희를 보아하니 각자 앞에 더플백 하나씩 놓고, 모자엔 전부 짝대기 하나, 옷은 A급인 걸 보니 이제 훈련병 끝내고 자대 가는구나 짐작하셨나 봐요. 그래서 본인들이 단풍 구경 가서 드시려고 싸 온 간식을 어떤 분은 봉지째 던져주시고, 성격 급한 분은 냅다 손으로 집어서 창문으로 막 던져주신 거죠.

그때는 관광버스 창문이 열릴 때였거든요. 그건 정말이지 제 평생 다신 없을 이벤트였습니다. 크리스마스에도 그런 선물은 못 받아봤으니까요.

지금도 44번 도로 신남~인제 도로를 지날 때면 하늘에서 과일 우박이 우르르 떨어졌던 그때를 생각하며 웃습니다. 그때 그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십시요.

장용의 단·필·충

군 부심 있습니다

애청자

매운 거 잘 먹는 사람들이 '맵 부심' 있다고 하지요. 저는 살짝 '군 부심'이 있습니다. 81M 박격포 주특기를 맡아서 다양한 군 생활을 하기도 했고 무엇보다 저랑 친한 동기동창 10명 중에 저만큼 군 생활을 힘들게 한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선, 제 친구들을 소개하자면 1번 친구, 운전병 조교로 군 생활을 하다가 일병 때 축구 중에 다쳐서 의가사 전역. 2번 친구, 논산 훈련소에서 훈련받다가 무릎 부종이 심해서 의가사 전역. 3번 친구, 과체중으로 면제. 4번 허리 디스크로 면제. 5번 산업기능요원. 6번 전문연구요원. 7번 육군 휴양소에서 상근 예비역으로 꿀 빨다 전역. 8번 테니스병으로 복무하면서 훈련소 이후로 한 번도 총을 만져본 적 없는 친구. 9번 기무사령부에서 머리도 기르고 삐삐도 쓰고 휴가도 엄청 많이 나갔던 친구. 다 이런 식이니 파란만장한 군 생활을 한 저로서는



군 부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날씨가 참 좋았던 96년 4월, 지금은 추억 속으로 사라진 102 보충대로 입소한 저는 국회의원 선거 때문에 보충대에서 10일을 대기하고 고성 훈련소로 입소했습니다.

그때 보충대가 저희 집에서 20분 거리였는데 굳이 편안한 집을 두고 보충대에서 10일을 대기한 것부터가 제 군 생활 불운의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8주간의 훈련 중 중반기에 들어선 4주 차 야간 정신교육을 마치고 내무반으로 복귀하는데 저 멀리 산 중턱에서 불이 난 게 보였습니다. 갓 입대해서 티 없이 맑기만 했던 저와 동기들은 '와! 산불이 났나 봐'라며 말하며 "그러게. 근데 진짜 너무 피곤하다. 얼른 내무반 들어가서 쉬고 싶어"라며 해맑게 부대 복귀, 개인 정비와 점호를 마치고 내무반 창밖으로 보이는 산불은 까맣게 잊은 채 "아,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너도? 나도. 야간 훈련 진짜 너무 힘들다." 이야기를 나누며 잠시 눈을 감았는데 눈을 떠보니 어느새 4시간이 흘러 새벽 2시. '아, 또 비상 훈련인가? 잠 좀 자게 해주지.' 불평하는 찰나, 조교가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실제상황이다! 완전군장으로 연병장에 집합한다! 서둘러라!"

순간 '전쟁이라도 난 건가? 왜 하필 내가 입대해서 신병 교육을 받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냐. 전쟁 영화에서처럼 맨몸으로 탱크에 뛰어들기라도 해야 하나.' 별의별 상상을 다 하며 연병장에 나가보니 시뻘건 불길이 보였습니다.

1996년 4월, 고성군 일대 산림 약 4천 헥타르를 태운 '고성 산불'의 시작이었습니다.

"각자의 군장을 연병장 가운데에 모으고 지정받은 구역의 물품들을 가져옵니다! 실시!"

그 와중에 저는 탄약고를 배정받았습니다. 강풍으로 불똥이 날아오는 상황에서 탄약고라니. 무거운 탄약 박스를 동기들과 미친 듯이 날랐습니다. 탄약고와 멀어질 때는 최대한 빨리, 다시 탄약고로 갈 때는 최대한 천천히 다리가 움직이더군요. 사람 마음이 다 똑같은지 동기들 움직임도 비슷했습니다. 탄약을 다 나르고 어슴푸레 날이 밝아질 무렵 연병장에는 연기가 가득했지만 불길은 어느 정도 잡혔다고

하더군요. 이후 벌어질 일이 예상되시나요?

"지정 받은 구역의 물품들을 다시 제자리로 가져다 둡니다! 실시!"

그 무거운 탄약을 다시 탄약고로 옮기고, 아침 식사 후 다시 교육 훈련을 받았습니다. 새벽에 그 난리를 겪었으니 오침이라도 시켜 주겠지 했지만 그건 망상. 아직 사회 물이 떨 빠진 훈련병의 헛된 꿈이었습니다. 그날도 오후 늦게까지 교육 훈련을 받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낮에는 잠잠하던 산불이 밤만 되면 다시 살아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밤을 이틀이나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훈련소를 수료하고 동기들과 이등병 계급장을 마치 전역 전에 개구리 마크라도 되는 양 뿌듯하게 달고 각자의 연대로 흩어졌습니다.

저는 주특기 1111 소총수를 부여받았고 연대 대기를 명령 받았습니다. 연대 대기 중 주특기가 바뀌더군요. 1112, M60 기관총으로요. 옆에서 기간병들이 "아저씨 꼬였네. 고생해라" 말했지만, 저는 그때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 이거 영화에서 람보랑 코만도가 들고 다니는 총이잖아. 멋있는 걸?' 지금 생각하면 멍청이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때 갑자기 대기하고 있던 연대 의무대가 분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연병장으로 헬리콥터가 착륙하고 의무대 차량이 헬리콥터에서 누군가를 싣고 빠르게 부대 밖으로 나가더군요. 누군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전방 GP 수색대대에서 지뢰 사고가 났대. 병사들이 많이 다쳤나봐."

갑자기 공포가 몰려왔습니다.

'아, 내가 군대에 그것도 최전방지역에 와있구나.'

대기하던 동기들과도 수색대대는 정말 무서운 곳인 것 같다는 얘길 하고 있었는데 멋진 휘장에 '민정 경찰'이란 마크를 단 간부들이 우리가 대기하고 있던 내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수색대대 사병을 차출하러 왔다. 지원자 있나?"

그러나 우리는 모두 방금 전의 헬리콥터와 의무대 차량의 모습을 보았기에 '저기만은 안 된다. 저기만은 제발 제발' 똑같은 마음으로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이놈들이 이렇게 용기가 없어서 어떻게 군 생활을 하겠나!"

호통 소리에 놀란 저는 저도 모르게 반응하여 고개를 들었고 간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자네는 주특기가 뭔가?"

"이병! 00. 제 주특기는 1112입니다."

"음 기관총이군. 소총수가 주특기인 병사, 일보 앞으로!"

그 말에 동기 몇 명이 끌려, 아니 불려 나갔고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수색대대에 가지 않게 된 것을 혼자 속으로 격하게 자축하고 있었는데 연대에서 대대로 배치받으며 주특기가 또 변경되었습니다. 1124(81M 박격포). 군대에서 들고 다니는 가장 무거운 화기, 81M 박격포. 처음엔 소총이었는데 어느새 기관총을 거쳐 제 주특기는 박격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4월 입대에서 6월까지 고작 2개월 동안 벌어진 일입니다.

이후의 군 생활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전투경찰 가혹행위로 전군 정신교육, 군단 BCTP, 강릉 잠수함 대간첩작전, GOP 경계근무, GP 파견근무, 유격 2회, 말년에 98년 북한 잠수정 침투. 뭐 이 정도면 10명의 제 동창 친구들 앞에서 군 부심 좀 가질만하지 않을까요? 제 친구들 앞에서 저는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의 밀러 대위 수준입니다.

장용의 단·필·충

날개 없는 식판이 날아다니다

김강호 | 서울 동작구 사당3동

1979년 대구 6095부대에서 근무했던 추억을 꺼내 봅니다.

6095부대 안에는 국군 대구통합병원, 국군 군의학교, 간호사관학교를 지원하는 근무단이 있습니다. 저는 그중에서도 국군 군의학교 지원 근무단 수송부 소속이었어요.

군의학교는 위생병이나 군의관, 위생장교 등을 교육하는 곳인데 우리 수송부에도 따로 식당이 있지만 학교와 식당의 거리가 너무 멀어서 원활한 근무를 위해 지원이 있는 날엔 군의학교의 식당을 이용했습니다.

지금은 각자 식판을 들고 자유 배식하지만 당시엔 하급자가 상급자의 식사를 배식받아 지정된 선임 자리에 일일이 갖다 두어야 하는 때였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같이 이등병 동기 5명과 점심을 받으려고 수송대원

50여 명의 식판을 들고 식당으로 갔습니다. 지금은 식판이 스테인리스 재질이지만 당시에는 플라스틱 재질이었어요. 배식구 입구에 식판 50여 개를 쌓아두고 동기 5명이 배식구를 오가며 배식을 받아 늘 식사하던 식탁으로 나르고 있었지요.

군의학교에는 후반기 의무병과 일반병, 하후생들도 교육을 받는데 그 기수에는 일명 단풍 하사인 장기 하사와는 달리 짬이 모자라서 이등병한테도 무시를 당한다는 단풍 하사 교육생들이 입교해 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배식을 받기 위해 식판을 옆구리에 끼고 식당 출입구에 줄지어 있는데 단풍 하사 중 인솔자가 다가와 묻더군요.

"뭐야? 왜 너희만 계속 배식받냐?"

"너희들은 여기 교육생이고 우리들은 기간병이야. 그러니 우리가 먼저 여기 쌓여 있는 식판에 배식 다 받고 너희들이 받으면 되는 거야. 기다려!"

그러면서 배식구에 식판을 밀어 넣었는데 그 인솔자가 저희 식판을 가로채 바닥에 던져 버리더군요. 순간 당황했지만 선임들이 평소에 교육시킨 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우리 아그들은 타 부대원들에게 절대로 기죽지 마라. 너희들은 기죽는 순간 박살 날 줄 알아!"

선임들은 소송부가 항시 차량을 운행하기에 군기가 빠지면 바로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정신교육과 육체(?) 교육을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하는 분위기였고 군기 빠진 행동을 너그러이 용서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교육받은 제 뇌가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생도들에게 질세라 옆에 서 있던 교육생 손에 있던 식판을 빼앗아 던져버렸지요. 바로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야, 새까만 쫄따구들아! 우리는 짝대기 4개 위에 갈매기가 있는 하후생이야! 너희들보다 선임이라고! 어딜 덤벼?"

순간, 그 소리를 들은 식당 문밖의 교육생들까지 합세하여 저희 쪽으로 본인들의 식판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원을 요청해 달려온 우리 대원들까지 합세하면서 싸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식당을 반으로 갈라 마주선 채로 상대에게 위협이 될만한 식판, 스푼, 모자 등을 던지며 고함을 질렀고 식당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지요.

취사장 안에서 배식을 하던 취사병들이 달려 나와 국자로 식탁을 치며 말렸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공중에선 식판이 전투기처럼 날아다니고 땅에선 의자와 식탁이 이리저리 밀려다니고 바닥엔 깨진 식판과 스푼, 모자들이 널브러져 있었죠.

바로 그때 이미 수차례 그런 충돌을 경험한 선임이 저쪽에서 날아오는 식판을 다 챙기라고 하더군요. 싸움에서 이기려면 무조건 다 던져야 할 거 같은데 선임은 최소한만 던지고 저쪽에서 날아오는 식판을 모두 뒤쪽에 쌓으라고 했습니다. 이유는 몰라도 일단 시키는 대로 앞으로는 고함을 지르며 뒤로는 식판을 챙기던 그때!

"동작 그만!" 큰소리가 들려오는 쪽을 바라보니 평소 아버지 같고 큰형님처럼 자상하신 우리 주임상사님께서 식탁 위에 우뚝 서서 워커발로 바닥을 구르고 계셨습니다.

"동작 그만! 동작 그만! 인솔자 누구야? 너희 직속상관 오라고 해!"

식당에는 정적이 흘렀고, 전후 이야기를 들으신 상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식당 정리부터 끝내고 식사 재개한다."

그러자 생도 쪽 대표가 묻더군요.

"근데 날아다닌 식판이 다 깨져서요. 식판이 부족한데요. 어떻게 먹죠?"

"모자라면 식판 하나에 두 명씩 해결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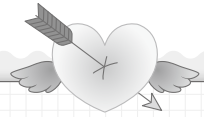
하지만 저희의 형편은 달랐습니다. 선임이 챙기라고 한 식판을 세어보니 원래 우리 대원의 것보다 20여 개가 더 있더군요. 교육생도 쪽에서 던진 것들이었지만 우리는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너무 이기적이라고요? 저희도 처음부터 그런 애들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자꾸만 그런 충돌이 생기니까 그때마다 억울하게 쌓이면서 그런 꼼수와 짬이 생긴 거지요.

도를 넘어선 식판 대첩 이후로 위에서는 더 이상 생도들과 저희 수송부 간에 충돌이 없도록 식당을 반으로 나눠 칸막이를 설치했고 식재료도 별도로 제공해주었습니다.

수송부는 업무 특성상 운행하고 늦게 귀대하면 주말에 나오는 별식 라면을 매번 팅팅 불어 터진 채로 받아서 포크 스푼으로 떠먹야만 했는데 식재료를 대원수만큼 따로 받으니 저희가 직접 달걀까지 풀어서 쫄깃하게 맛있게 끓여 먹을 수 있는 호사도 누렸습니다.

당시 대구 만촌동에 있었던 6095부대는 이제 대형마트와 아파트가 들어섰고 국군의무사령부는 경기도 분당으로 국군 군의학교와 국군 간호학교는 대전으로 국군대구통합병원은 경산으로 각각 이전했지만 함께 땀 흘리고 뒹굴고 때론 식판을 날렸던 추억만은 같은 장소에 남아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사랑탐구생활

소중한 인연

쎄브니 아빠 | 경기도 시흥시 장현천로

나는 마흔까지 연애를 잘 못했다. 하던 일이 바쁘기도 했고 부모님 성화에 몇 번 나간 맞선 자리에서는 번번이 퇴짜를 맞았다. 자신감도 떨어졌고 괜한 시간 낭비도 하기 싫었다.

그래서 일만 하며 지내다 보니 어느덧 내 나이 마흔. 어느 정도 능력과 여유는 생겼지만 주변 사람들의 시선 앞에서 나는 늘 초라해졌다.

'저 사람은 저 나이 먹도록 왜 장가를 못 갔을까?'

'무슨 하자 있는 거 아니야?'

그때부터 많은 노력을 했다. 지인들에게 소개팅도 부탁하고 열심히 운동해서 살도 빼고 유행한다는 비싼 옷도 사 입고 피부 관리도 하고 조금씩 나를 개선시켜 나갔다. 그래도 소개팅의 결과는 별반 차이가 없었다. 최후의 수단으로 결혼정보업체에 등록해 8번의 소개를 받았지만 그것마저도 꽝! 약 3년간의 노력에도 번번이 퇴짜를 맞다 보니

나는 나의 인성, 외모, 말투, 행동 모든 것에 자신이 없어졌다. 평생을 함께할 반려자를 만나는 기적 같은 건 나에겐 이룰 수 없는 꿈이라는 생각마저 들었다.

하지만 푸념만 하고 있기엔 내 인생이 너무 아까웠다. 그래서 나는 솔로들만이 누릴 수 있는 것, 결혼한 사람들은 하기 힘든 다양한 취미를 즐겨보자 생각했다. 골프를 배우고 격투기 학원도 다니고 스노우보드 동호회도 가입했다. 그렇게 나만의 자유를 즐기던 어느 날 동우회 회원 중 한 명이 나에게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했다.

"회원님, 인천 사신다고 했죠?"

"네~ 그런데요?"

"저한테 부산 사는 친구가 한 명 있는데요. 회원님하고 잘 어울릴 거 같아서요. 혹시, 장거리 연애도 괜찮으세요?"

처음엔 거절했다. 지역적으로 너무 먼 거리는 아무래도 힘들겠다 싶어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약속을 미뤘는데 인연이었을까 회사 업무로 스트레스가 심하던 어느 날 여행 삼아 부산에 가고 싶었고 나는 용기 내어 그녀를 만나기로 했다.

부산역 앞에서 만난 그녀는 수줍은 듯 정면이 아닌 옆으로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다. 택시를 타고 음식점으로 이동해서 식사를 주문할 때까지도 나는 긴장한 탓에 그녀는 수줍은 탓에 우린 서로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 간단한 인사를 나누며 어색하게 식사를 하고 근처 카페로 이동해 커피를 마시려는데 그녀가 더운지 머리를 뒤로 묶었다. 그때였다. 흩날리는 머리카락 사이로 진한 쌍커풀에 뚜렷한 이목구비, 갸름한 턱선, 시원한 이마가 드러났다.

'뭐야? 왜 이쁘다는 얘길 안 해준 거야! 눈이 부셔서 그런가 정신이 바짝 드네. 자자~ 정신 차리자~ 지금부터는 그 어떤 말실수, 매너 없

는 행동도 해서는 안 돼! 정신 차리자! 아자아자!'

그때까지 나는 사람을 만날 땐 솔직한 게 제일 좋다고 생각했다. 내 성격 그대로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여주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했고 그래서인지 번번이 실패했다. 그래서 그날은 조금 솔직하면서도 능력 있어 보이는 약간의 허세, 그러면서도 겸손함을 갖추려고 애썼다.

"저기, 죄송한데 저한테 너무 가까이 오지는 마세요. 제가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어서요. 에이취~"

"후훗."

'웃었다! 방금 그녀가 웃었어! 좋아~ 이대로 가즈아~'

"사실 저는 혼자 지내는 것도 그렇게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이제 나이도 있고 안정된 직장도 있고. 아! 그리고 제가 부자거든요. 취미 부자. 골프, 수영, 격투기, 보드. 하고 싶은 건 그냥 다 하고 산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야? 반응이 왜 없지? 이건 쫌 심했나? 그래 방금 이건 너무 재수 없었을 거야. 겸손하게 가자. 겸손하게!'

"근데 그렇게 취미가 많아진 게 사실은 제가 연애를 잘 못해서예요. 제가 마흔 넘도록 일만 했거든요. 나름 노력은 많이 했는데 보시다시피 외모도 그렇고 말 주변도 별로 없고."

그렇게 그때까지의 나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듯 같은 모습으로 진지하게 그분을 대했다. 다행히 큰 실수 없이 첫 만남이 끝났고, 두 번째는 그분이 인천으로, 세 번째는 내가 다시 부산으로 그리고 무슨 자신감이었는지 모르겠으나 나는 세 번째 만남에서 그녀에게 청혼을 했다. 네 번째 만남에서 결혼 날짜를 정하고 식장을 잡았다.

나도 지금껏 뭐가 어찌 된 영문인지 모르겠다. 모든 것이 그냥 불꽃처럼 지나갔다. 2017년 4월 8일 우린 처음 만났고 2017년 5월 1일 결혼 날짜를 잡았고 나는 지금 아내와 날 닮은 예쁜 아이까지 낳았다. 인생 대역전, 대성공을 거둔 것이다.

결혼 후 아내에게 물어봤다. 우리가 이렇게 사랑에 빠진 이유, 그녀가 나에게 믿음을 가진 이유가 뭐였을까?

아내는 말했다. "처음 부산역에서 만났을 땐 웬 나이 많은 아저씨인가 했어. 자기도 알다시피 내가 주로 연하들만 만났었잖아. 그래서 그땐 그냥 저 멀리서 어르신이 날 본다고 부산까지 오셨는데 예의 바르게 잘 대해드리다 보내 드려야겠다 생각했다."

"진짜? 나는 내 외모에 반해서 잘해준 줄 알았는데."

"미쳤나? 암튼 그렇게 같이 밥을 먹는데 당신이 나한테 잘 보이려고 엄청 애쓰는 게 보이는 거야. '사실 저는 혼자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요. 제가 부자거든요. 취미 부자. 하하~' 이러면서 당신이 허세를 부리는데 테이블 밑으로 당신이 초조해서 다리 떠는 게 보이는 거야. 어색한 말투랑 행동, 나이에 맞지 않는 순수함이 귀엽더라. 당신이 열심히 살아온 흔적들을 얘기할 때는 이 남자, 참 성실하구나 싶었어. 소위 잘 나간다는 남자들이랑 소개팅할 땐 메스꺼워서 밥이 잘 안 넘어갔거든. 근데 당신하고는 밥이 맛있더라고. 그래서 결심했지. 아, 이 남자랑 매일 밥 먹고 싶다!"

그렇게 저는 저의 외모나 학벌, 눈에 보이는 스타일보다 나의 진심, 마음, 가치관을 알아봐주는 소중한 인연을 만났습니다. 물론 결혼 초반 아내는 저에게 사기 결혼 당했다고 우스갯소리로 고소하겠다는 말도 했었다는 사실을 밝혀두면서. 나와 결혼해주고 힘들게 아이까지 낳아준 사랑스런 나의 아내 서연재 씨에게 앞으로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 할 것을 여성시대 가족들 앞에 굳게 다짐합니다!

사랑탐구생활

등산으로 확인한 사랑

육은영 | 경기도 남양주 별내동

저희 부부는 활동하는 걸 좋아해서 주말이나 휴일에 자주 등산을 갑니다. 그날은 토요일이었어요. 점심을 먹고 코로나19 때문에 사람 적은 곳으로 목적지를 정하고 산행에 나섰습니다.

"이 길은 정말 한적하네. 어쩜 사람이 한 명도 없냐?"

"조용해서 좋네. 도토리 떨어지는 소리도 들리고. 들었어? 푸드득 새 날아가는 소리도 들리고~ 물소리도 들리고~."

"그러게. 아후~ 숨차고 땀나는데 그래도 좋긴 좋네."

그렇게 남편과 저는 가파른 바위도 타고 숨차게 고개도 오르고 언덕 위 정상에서는 시원한 바람도 실컷 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천천히 하산하기로 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내려가는 걸 조심해야 해."

"그래~ 이제 무릎이 아프다니까."

"인생이랑 등산이 똑같아.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가는 게 중요해요. 자, 당신은 나만 따라와. 여기 로프 있다. 이거 잡고 이렇게 한 발 한 발 조심~ 조심~ 으아아아악!"

내리막길 옆 바위 옆으로 설치되어 있던 얇은 로프를 잡고 내려가던 남편은 갑자기 가파른 바위 옆 거의 10m 아래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제 눈앞에서 남편이 떨어지는 걸 보는데 그 충격이란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놀라서 소리를 지르고 울고, 경사가 심해서 바로 내려가 보지도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데 잠시 후 저 아래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당신, 괜찮아?"

"아니, 지금 내가 문제야? 당신이 떨어졌잖아! 당신, 괜찮아? 움직일 수 있어?"

"팔이 이상해. 지금 올라갈 테니까 당신 거기 꼼짝 말고 있어. 위험하니까 움직이지 말고."

그 상황에서도 저를 먼저 걱정하며 올라오는 남편을 보니 마음이 찡~ 눈물이 핑~ 아, 역시 위기 상황에서 진짜 가족의 진가가 나타나는구나! 감동했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근데 여보 아무래도 오른쪽 손목이 부러졌나 봐. 못 움직이겠다."

바위 위로 겨우 기어 올라오듯 올라온 남편의 말에 저는 울렁대는 심장을 부여잡고 119에 신고를 했습니다. 위치 파악에 동의하니까 바로 저희 위치가 파악됐다고는 하는데 아무래도 산속이다 보니까 정확한 장소가 아니고 어디쯤으로 나온다고 한 시간 정도 기다려야만 했어요. 구조를 나온 대원들도 산속에서 저희를 찾아 헤맬 수밖에 없었던 거죠.

산속은 금방 어두워지더군요. 저녁 6시 무렵 야생동물이라도 나오

면 어쩌나 스멀스멀 어둠과 함께 두려움이 피어오르던 그때 구세주 같은 구급대원분들을 만나 남편 팔에 부목을 대고 그분들이 준비해 온 랜턴을 머리에 차고 조심조심 내려오는데 밤 산길은 참 위험하더군요.

병원 응급실에서도 할 게 참 많았어요. CT, X-레이, 피 검사, 소변 검사. 남편의 얼굴이 어린아이처럼 빨개져서 울음을 참으며 뼈를 맞출 땐 안쓰럽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신기한 게 그렇게 뼈를 맞추고 나니까 손가락도 움직여지고 통증도 훨씬 덜 하다고 하더라고요.

이참에 산행하시는 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어요. 산에 보면 얇은 빨래줄 같은 노끈 있잖아요. 그건 절대 믿지 마세요. 그 줄은 비 맞고 세월 흐르면서 삭아서 쉽게 끊어진대요. 지자체에서 설치하는 설치물은 튼튼한 제품이라 괜찮은데 그 얇은 줄은 개인들이 다니면서 설치하는 거라 사고의 위험이 상당히 크답니다.

마지막으로 병원에서 나오면서 제 남편이 그러더군요.

"그래도 내가 떨어져서 정말 다행이야. 만약 당신이 떨어졌으면 이 정도 안 끝났을 걸. 아후~ 생각하기도 싫다."

세상에 이런 남편이 또 있을까요?

"여보~ 나도 당신이 다쳤을 때 차라리 내가 다쳤으면 했어요. 그런데 당신이 그리 말해주니까 내 마음이 울컥하더군요. 수술 잘 마치고 회복 잘해줘서 고맙고, 당신 아픈 동안 내가 옆에서 별로 해준 것도 없는데 고맙다고 '앞으로 내가 더 잘할게' 말하는 당신을 보니까 내가 그동안 당신한테 너무 못 했나 반성도 했답니다. 우리 앞으로도 가능하면 싸우지 말고 서로 사랑하며 꽁냥꽁냥 30년만 더 살아요. 앞으로 내가 더 많이 예뻐해 줄게요. 사랑합니다~."

일요일엔 편지를

굳세고 알뜰한 순자에게

심순자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이름 한 번 불러보자. 순자야!

처음으로 나에게 편지를 써본다.

순자야!

젊어선 젊은 줄만 알았지 칠십이라는 나이는 정말 생각지도 못했다. 너 역시 가는 세월 앞에 장사 없구나. 넙죽 엎드려서 기구했던 사연들을 한 번 써보자. 아침에 한 일 저녁에 생각 안 나고, 먹은 약 안 먹은 줄 알고 또 먹고, 시시때때로 깜빡하는 난데 몇십 년 지난 일이 이렇게 선명하게 떠오르는 건 무슨 이유일까.

육 남매의 맏며느리로 남편과 연을 맺은 지 어언 46년. 단맛, 쓴맛, 고된 인생길로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되었으니 짧은 시간은 아니구나.

순자야, 가난한 집 맏며느리 자리가 얼마나 무거웠니. 열한 식구 한 지붕 밑에 살면서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자리에 앉을 새 없이 허리가

끊어질 듯 일했지. 겨울이면 손등이 두세 번씩 터지고 아물고 할 정도로 일했어.

결혼 1년 만에 시아버님 대소변 수발, 식사 보조에 시냇물 얼음 깨서 시누이와 시동생 속옷 빨래까지 했잖아. 그런데도 아들 하나 못 낳았다고 원망 섞인 목소리를 들어야 했어. 정말 매운 시집살이였지. 시어머니의 남아 선호 사상은 극심했어. '어구 내 새끼~'하며 손녀딸을 안아주기는커녕 말끝마다 '쓰잘데기 없는 계집애'라고 하실 때면 바늘로 가슴 한복판을 찌르는 듯했고 순간마다 눈물을 손등으로 쓸어내려야 했지.

시집온 지 삼 년이 지나니 들일까지 네 몫이었지. 기운은 없는데 일은 많고 막상 일을 해도 크게 드러나지 않아 속상했지. 서산 넘어가는 해 붙들고 밭고랑에서 가을걷이하고 콩싸라기 키질하던 바쁜 손길.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워 부뚜막에 걸터앉아 대충 뜨기가 일쑤였어.

그렇게 십년이란 긴긴 세월을 농촌에서 보내고 도시로 왔다. 가진 것 없이 시작된 살림. 열심히 살려고 노력은 했으나 만만치 않았지. 먹거리가 흔치 않던 시절 남긴 밥 긁어 먹고 과일 꼭지 발라 먹고. 반듯한 김 한 장, 온전한 계란 한 개 입에 넣어본 적 없지만, 넌 그저 딸들이 달가닥 달가닥 밥그릇 비워주면 배부르고 흐뭇했지.

도시에서 집 장만하기란 정말 하늘의 별 따기였어. 월세에서 전세, 전세에서 성냥갑만한 내 집을 마련하려고 발버둥 치고 정말 안간힘을 다했다. '내년이면 집 사겠지' 하면 집값이 껑충껑충 뛰어오르고, 또 오르고. 그렇게 19년이나 걸렸네.

세월의 갈피에 묻혔던 고생이 다시금 떠오른다. 관광버스 한 번 타보지 못하고 날깃날깃한 속옷, 닳고 닳은 신발짝이 네 멋의 전부였지. 시간은 쪼들리고 생활은 고달프고 참 울타리 안에 갇혀있는 삶이었다, 순자야.

생각해보면 엄마라는 이름으로 한평생 헌신하면서 남은 건 통증뿐. 마음은 청춘이지만 몸은 청춘이지 못한 심순자구나. 정해진 틀 안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 듯 반복되는 삶이 지금까지 순자의 삶이었다면 이제는 구속의 끈을 끊고 살고 싶다.

순자야, 구구절절 편지를 쓰니 많은 것을 느끼고 깨닫는 것 같다. 내 몸의 소중함을 새롭게 새기는구나. 아웅다웅 싸우며 살 일도 아니고 괜한 욕심에 허송세월 할 일도 아닌데. 이제야 내 모양을 바로 볼 줄 아는 눈이 떠지나 봐. 그런데 몸은 여기저기 트집을 잡네. 어제는 병원, 오늘은 약국을 찾으며 약과 타협을 본다.

그래도 장애인 일자리에서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고, 오후 자투리 시간엔 소소한 것들을 배우고 있잖아. 젊어서도 순자는 시간을 돈보다 더 아꼈지. 노년에 일하는 즐거움과 배우는 기쁨이 이렇게 클 줄이야. 아침에 눈을 뜨면 갈 곳이 있고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어서 좋아. 정확한 시간과 싸우는 출퇴근이 불편함이 아니라 보람을 안겨준단다.

순자야, 아침에 마음도 몸도 바빠 양말을 홱 집어던지고 묵직한 가방을 둘러맨 채 잔소리만 남기는 내게 "파란불도 조심히 건너~ 넘어지지 말고…" 투박한 손 흔들며 배웅하는 남편의 걸걸한 목소리는 온종일 마음속에 남아있구나.

순자야, 명품을 걸친 화려한 인생은 아니지만 마음이 명품인 순자가 자랑스럽다. 파란만장한 인생 버티고 견디면서 순서대로 잘살아줘서 고맙다. 순자야! 긴 세월 정말 고생 많았어. 알뜰히 살았기에 오늘이 있는 것 같다. 순자가 최고야! 힘찬 박수 보내마.

- 순자를 언제나 응원하는 순자가

일요일엔 편지를

할아버지에게

오윤수 | 인천광역시 계양구

할아버지! 요즘 할아버지 생각이 부쩍 많이 나.

얼마 전 마트에 갔는데 할아버지가 좋아하시던 양갱이 세일하더라. 옛날에 내가 양갱 사가면 할아버지가 앉은 자리에서 2~3개씩 드시곤 했잖아. 그때 더 많이 사드리지 못해서 미안해 할아버지.

할머니는 할아버지와 가까이 있고 싶다고 시골로 내려가셨어. 여전히 할아버지가 그리우신가봐. 할머니가 아직도 할아버지를 잊지 못하신 걸 보면 할아버지가 잘생기시긴 했어? 그치?

할아버지, 미안해. 마지막에 할아버지와 같이 있지 못했던 게. 요양병원에서 할아버지 그렇게 혼자 뒀던 게. 정말 미안해.

한 번도 할아버지한테 고맙다 사랑한다 말 못 했는데 왜 말 안 했을까. 너무 후회가 돼. 그래서 할머니한테라도 그런 말들 자주 하려고 해. 근데 할머니랑 전화할 때 여전히 틱틱대. 나, 참 못된 손녀다. 그치?



나 어릴 때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 키워줬잖아. 그땐 사실 너무 창피했어. 나만 옆에 엄마 아빠가 없어서. 근데 지금은 말이야. 유일한 내 편이었던 할아버지 할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 이제 나도 어른이라고 모든 걸 혼자 결정하고 책임져야 해. 그게 참 힘들다.

아이들 키우는 것도 너무 힘들어. 나는 젊어서 키우는데도 이렇게 힘든데 할아버지 할머니는 60살 나이에 어떻게 나를 키웠어?

할아버지, 고마워. 나 삐뚤어지지 않게 잡아준 것도, 나 열심히 공부하라고 시골에서 서울로 데려온 것도, 나 건강하게 키워준 것도 다 고마워. 지금까지 잘살 수 있도록 할아버지가 옆에서 쭉 보살펴준 것 같아.

이젠 볼 수 없지만 나, 할아버지 잊지 않고 정말 열심히 살 거야. 나중에 할아버지 만나면 밤새 자랑거리 늘어놓을 수 있게. 다음에 다시 태어나면 그땐 내가 할아버지 호강시켜 줄게. 꼭.

할아버지, 보고 싶어! 사랑해!

일요일엔 편지를

어무이

현욱 | 충북 옥천군 청산면

어무이! 오늘도 어무이는 서른여섯 다 큰아들의 속옷까지 깨끗이 세탁해서 방에 가져다 놓으셨네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음료수며 과일이며 간식들이 차곡차곡 채워져 있네요. 강아지 세 마리가 어지럽힌 방은 깔끔하게 청소되어 있고 향기까지 솔솔 풍깁니다. 제가 퇴근하고 와서 한다고 제발 하지 마시라고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어무이는 들은 척도 안 하시네요. 남는 시간에 이런 거나 해주지 뭐하겠니 하시는 어무이. 시간이 남기는 뭐가 남나요. 그 힘든 식당일 끝나고 틈틈이 아들 자취방까지 오셔서 이렇게 아들의 뒤치다꺼리를 해주시는 어무이.

어무이! 이제 안 그러셔도 됩니다. 저요 이제 정말 마음잡았어요. 벌써 2년입니다. 2년 전 몸과 마음이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진 저를 향해 어무이는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야. 옛적에 잘 나가던 기억은 잊고 고향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야. 이 엄마가 도와줄게"라고



하셨죠. 어무이는 아들의 취업을 위해 모든 인맥을 동원했고 저는 못 이기는 척 지금의 회사에 취업했습니다. 처음 몇 달간은 낮은 임금에 견딜 수가 없었어요. 전성기 시절의 하루 술값도 안 되는 금액을 한 달 급여로 받았을 때의 그 참담함을 어찌 말로 표현할까요.

그런 저를 토닥여주시며 행여 나쁜 마음먹을까 늘 노심초사 아들의 눈치만 살피는 어무이를 보며 저는 마음을 추스르고 현실을 직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어무이! 이제는 마음 놓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 옷은 제가 세탁할 테니 어무이 건강부터 챙기셔요. 어무이가 하루하루 약해져 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아들 가슴이 얼마나 철렁 내려앉는지 아세요? 모든 게 다 못난 제 탓 같아서 속상하고 조심스럽습니다.

어무이! 이제 두 번 다시 심려 끼쳐 드리지 않을게요. 평범하게 사는 삶이 가장 행복한 그리고 가장 효도하는 삶이라는 걸 느끼게 해주신 어무이.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일요일엔 편지를

하늘에 쓰는 편지

이정숙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엄마! 이제 난 엄마가 없네.

서리가 내린 어느 아침, 차가운 땅에 작고 연약한 엄마를 묻었지.

유난히 사람을 좋아하고 나눠주는 걸 좋아하던 욕심이라고는 없던 우리 엄마. 그런 엄마를 다신 볼 수 없다는 게 아직도 실감 안 나. 이제 난 엄마가 없네.

난 엄마가 잠시 어디 외출한 거 같아.

엄마 집에 가 보면 곳곳에 엄마 손때 묻은 물건들이 나를 아프게 쳐다봐. 엄마 옷을 정리하다 보면 한 번도 입지 않은 새 옷은 왜 그렇게 많은 건지.

집 뒤뜰로 돌아가면 굽은 허리에 느린 발걸음으로 꼬물꼬물 엄마가 걸어 나올 것 같아.

엄마가 정말 보이지 않네.

평생 좋은 거, 편안한 거 한 번 못 누려 보고 마지막 시간을 고통으로 보내다 간 엄마.

난 엄마의 마지막 모습을 덤덤하게 추억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엄마! 그동안 살아내느라 고생 많았어.

이제 밝은 눈, 튼튼한 팔다리, 꼿꼿한 허리로 이승에 미련 두지 말고 훨훨 날아가세요. 좋은 곳으로 가셨으리라 믿고 나도 일상으로 돌아갈게.

그래도 엄마가 새록새록 생각나겠지. 벚꽃이 피고 나뭇잎이 무성해지고 은행잎이 소복 쌓이고 앞마당 감나무에 그 맛있는 감이 열리고 예고 없이 탐스런 눈발이 날리면, 항상 생각이 나겠지. 엄마는 항상 내 맘속에 있을 테니까.

내가 견딜 수 있을 만큼만 추억해야 할 텐데.

엄마, 난 벌써부터 엄마한테 전화가 하고 싶어 죽겠네.

그렇게 반갑게 받아주던 전화를 한 번이라도 더 할 걸. 병실에서 만져보던 마지막 손길이 지금도 생생히 기억나는데 엄마는 참말로 안 계신 거지? 그치?

우리 엄마, 지금쯤 어디로 가고 계실까. 겁 많고 의심도 많은데 혼자 가는 길이 무섭고 두렵진 않을까? 엄마 가는 길 굽이굽이 제발 어둡지 않았으면 좋겠네.

엄마, 거기서 다시 젊은 시절로 돌아가.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건강한 몸으로 편안한 모습으로 자식들 꿈에도 꼭 한 번씩 오세요. 그러면 우리도 좀 편해질 거 같아.

엄마, 이제 정말로 보내줘야겠다.

엄마, 안녕, 안녕!

단출한 삶



양희은 | 여성시대 진행자

아침이면 어김없이 만나는 여성시대 담당 PD는 늘 새로운 어린이 간식을 건넨다. 애들 때문에 여러 가지를 인터넷에서 찾아내고, 새로운 것을 먹는 재미도 크단다. 남자는 스무 살 때 만난 한 사람뿐인데 애들 간식을 빌미로 늘 새것을 맛보는 즐거움도 크다며 웃었다.

그런가 하면 작가는 머리가 좋아지는 두뇌회전에 도움이 되는 요일이 적힌 견과류 작은 봉투를 건넨다(해바라기씨, 호두, 아몬드, 건포도, 호박씨, 마카다미아, 말린 대추 등등의 조합이 달랐다). 이렇듯 아침 간식은 커피와 더불어 작은 기쁨이다.

2020, 2021년 코로나19가 우리의 일상과 삶을 바꾼 2년 동안에 참 이상하게 날짜도 모르겠고, 방송 시작할 때 날짜와 요일을 알리며 아! 오늘이 10일이구나 1월이구나 할 뿐, 돌아서면 그날이 그날이라서 연말연시에 대한 감상이 하나도 없었다.

도대체 시간은 누가 정해서 칸칸이 가르고 나누며 세월이 흐르는 걸까? 시간을 몰랐다면 세상은 어찌 변할까? 하루하루 살아지니까 사는 것 같을 뿐이다. 그래도 할 일이 있고 여성시대 식구들이 가슴으로 써서 보내는 사연 덕에 새롭게 삶을 바라보게 됨이 고맙고 고맙다.

어느 날 큰 거울에 비친 내 모습에 깜짝 놀라 "이럴 줄은 몰랐어,

야~ 내가 봐도 서글프다. 구부정한 어깨며 무대에서 떨어진 후, 올곧았던 다리는 어느새 휘고 여러 가지로 참 추레하구나." 남편을 보고 말하니, "괜찮아, 괜찮아. 노래할 땐 아직도 짱짱해. 걱정하지 마" 위로한다.

남편은 무대 위 나를 향해 인정사정없이 칼 같은 모니터를 하는 사람이다.

"당신! 저럴 거면 더 이상 노래하지 마."

늘 이런 식인데 웬일로 점수가 후하다. 남편은 요새 기운이 많이 가라앉아있다.

만성질환인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라 추워지면 몸이 굳는다. 그래서 겨울이면 더운 곳에 가서 살자는 얘기를 한다.

몸도 마음도 편치 않고 예민하다. 그래서 나는 장보고 반찬을 만들고 잡곡밥 짓는 일에 열중한다. 나물도 보통 때보다 더 열심히 만들고 육고기는 줄였다. 저녁때 아무리 피곤해도 잡곡과 콩 비율을 잡아서 씻어 불려놓고 잔다. 코로나19는 보통 때도 집콕을 즐기는 내게 밥순이 노릇을 많이 늘려주었다. 남편의 도시락 밑반찬도 부지런히 만든다.

엄마는 새해 93세가 되셨고, 식구들이 집에 돌아오기 전 16살 미미를 방으로 들여 따뜻하니 이불 속에서 둘이 재미를 본다. 우리 식구 셋은 부스터 샷까지 다 마쳤다.

나는 당분간 콘서트에 대한 생각을 접었다. 화장품 몇 가지가 너덜너덜해서 몇 가지 더 살 때, 원고 쓸 때 없으면 안 되는 옐로 패드 묶음을 살 때, 내가 이걸 다 쓸 수 있을까? 생각한다. 방송 연예계 물에서 노는 동안 모든 걸 다 쓰고 갈 수 있나? 요사이 꼭 이런 생각을 한다. 물론 두루두루 다 잘 입고 쓰고 떠나기를 바란다.

옷장 정리 중에 든 생각은 혹시라도 갑자기 떠나면 죽은 자의 짐정리를 전문으로 하는 분이든 내 동생들이든 간에 엄청 툴툴대며 어쩌면 100일 동안 나의 책, 무대의상, 안경, 액세서리, 스카프, 모자 속에서 허우적댈지도 모른다. "이 여자, 정말 칠칠찮은 사람이었구만!" 이런 소리는 듣고 싶지 않다. 온통 버리고 단출하게 살아야 하는데 말이다.

친구는 말했다. "한 집에서 오래 사니까 정리가 안 되는 거야. 이사를 여러 번 다녀야 정리도 된다. 버릴 것도 버리고! 아무리 봐도 넌 정리 못 할 것 같다."

아이쿠~ 이런 저주가 없구나. 떠나기 전에 정리를 대대적으로 하고 싶은데 에너지 딸리고 마음에 의욕이 없다. 코로나가 핑계거리가 아니다. 그냥 게으르고 칠칠치 못한 거야.



호랑이의 좋은 기운이 우리 모두에게 퍼지기를 바라며

서경석 | 여성시대 진행자

2022년, 검은 호랑이의 해가 밝았다. 새해가 되면 그해의 동물과 관련된 속담, 격언들을 통해 마음을 다잡곤 한다. 그런데 호랑이 관련해서는 딱히 떠오르는 이야기가 많지 않다. 그나마 금방 떠오르는 이야기도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 이빨 빠진 호랑이,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등등 아주 무서운 존재, 혹은 엉뚱한 이미지의 호랑이이다. 그래서 용맹스럽고 정의로우면서도 따뜻한 호랑이를 떠올릴 수 있는 이야기들을 몇 가지 찾아보았다. 올 한 해 호랑이의 이런 좋은 기운이 국민 모두에게 전해져서 '코로나19'처럼 고약한 녀석들은 모두 떨어져 나가고 행복한 일들만 함께하기를 희망하며.

웅호지사(熊虎之士): 곰이나 호랑이 같은 선비, 용맹한 무사나 장수.

호시우보(虎視牛步): 범처럼 노려보고 소처럼 걷는다. 예리한 통찰력으로 꿰뚫어 보며 신중하게 행동함.

맹호복초(猛虎伏草): 풀숲에 엎드려 있는 사나운 호랑이. 영웅은 한때 숨어 있어도 때가 되면 반드시 나타난다.

호생문병(虎生文炳): 범은 나면서부터 문채가 빛난다. 영준(英俊)한 사람은 어릴 때부터 기량(器量)이 비범함.

호소풍생(虎嘯風生): 범이 울부짖자 바람이 인다. 영웅이 떨쳐 일어나다.

호표기수견양기(虎豹豈受犬羊欺): 호랑이나 표범이 어찌 개나 양의 속임을 받으리오. 君子(군자)는 小人(소인)의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연함호두(燕頷虎頭): 제비처럼 옆으로 퍼진 턱과 호랑이처럼 단단한 머리. 훗날 크게 이름을 날릴 인상.

호랑이도 제 새끼는 안 잡아먹는다: 사람이 제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듯, 아무리 용맹스러운 호랑이도 자식 사랑은 사람과 같다.

자식 둔 골은 호랑이도 돌아본다: 호랑이도 새끼를 사랑하여 새끼가 있는 곳을 살펴보는데 하물며 사람은 더 말할 것 없다.

첩을 가진 자의 창자는 호랑이도 안 먹는다: 본처와 첩을 데리고 사는 사람은 몹시 속이 썩기 때문에 그 창자가 썩어서 호랑이도 안 먹는다. 처첩을 거느리는 자는 속이 썩는다. 호랑이도 먹이를 가릴 줄 안다.

호랑이는 제 새끼를 벼랑에서 떨어뜨려 본다: 자식을 훌륭하게 기르려면 어려서부터 역경을 경험하게 하여야 한다.

호랑이 어금니 같다: 아주 든든하고 믿음직하다.

지난 2년여간 풀숲에 엎드려 있었던 수많은 호랑이여! **맹호복초(猛虎伏草).** 새해에는 어금니 꽉 깨물고 비상합시다! **호소풍생(虎嘯風生).** 하지만 아무리 힘들고 급해도 부정한 것은 취하지 맙시다! **첩을 가진 자의 창자는 호랑이도 안 먹는다!** 그리고 가족과 친구를 저버리고 나아가진 맙시다! **자식 둔 골은 호랑이도 돌아본다!**

지난달에 한마음으로 합격을 기원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여러분 응원 덕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얻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IBK BOX POS
POS 모드
메뉴 관리, 테이블 주문 관리 등
일반 POS 기능이 모두 가능합니다
카드매출 입금확인
가게 매출이 카드사에 정상 매입되었는지,
대금 입금일은 언제인지 확인 가능합니다
간편결제 모드
금액 입력 후 결제할 카드나 스마트폰을
사장님 스마트폰 가까이 대면 결제 완료
일간 재무리포트
일별로, 시간대별로, 메뉴별로
판매현황을 즉시 확인 가능합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1-2508호(2021.07.02) 유효기간(2022.07.01) ※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서비스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는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중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문의는 거래 영업점 또는 IBK BOX POS 고객센터(☎02-729-7633)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IBK기업은행은 금품·향응을 받지 않습니다. 윤리경영 위반 사실이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02-729-7490, e-mail : ibkethics@ibk.co.kr)
IBK기업은행